

일상생활과 기록

Archival Program for Daily Life

이영남(Lee, Young-nam)*

1. 프롤로그
2. 아키비스트의 탄생
 - 1) 화양연화
 - 2) 월담
3. 아키비스트의 생활
 - 1) 북극의 나누크
 - 2) 사랑
4. 아키비스트의 연설과 텍스트
 - 1) 텍스트 생산
 - 2) 대통령 연설과 동무 연설
5. 아키비스트의 시간 : 에필로그를 대신하여

*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조교수(durtkrk@gmail.com)

■ 투고일: 2019년 12월 31일 ■ 최초심사일: 2020년 01월 23일 ■ 최종 확정일: 2020년 01월 28일

■ 기록학연구 63, 167-225, 2020, <https://doi.org/10.20923/kjas.2020.63.167>

〈초록〉

‘일상생활과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실험을 수행했다. 일상에서 사람들 간에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는 아카이브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어떤 계열의 아카이브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일상생활에 간편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것은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기록세계에 대한 탐구였다. 100명의 20대 대학생들과 4개월 동안(2019.9~12) 시행착오를 반복했다. 따로 실험실을 차린 것은 아니었다. 대학에서 정구적으로 개설하는 교과시간을 활용했다. 대학 제도에서 강제되는 권력적 통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줄거리는 햇볕정책이었다. 인간에게는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있다. 누구라도 이런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면 그 행동을 막기는 쉽지 않다. 정서적 지원을 통해 자발성이 싹트기를 노력했다. 실험은 당연한 것들에 의문을 품고 새로운 것을 찾아보는 시도이다. 멀리서보면 아카이브와 거리가 있어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직업적 아키비스트의 한 사람으로 기록학적 원리로 통제하면서 수행한 기록시간이었다. 이야기 형식으로 정리해 기록학적 함의를 살펴본다.

주제어 : 동무, 대화, 사건, 이야기, 화양연화, 복극의 나누크, 월담, 연설, 아키비스트, 일상생활, 공감, 육체, 감정, 산문, 규범, 체화, 정서적 통제

〈Abstract〉

The author conducted a records research named ‘daily life and record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as to find an archive, if possible, that would be effective in promo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people in their daily lives, and to distinguish what type of archive it would be, as well as how to let it naturally take place in their ordinary lives. For 4 months (August-December 2019) with 100 college students in their 20s, trial and error were repeated. There was no separate laboratory for the research, and it used regular school hours at universities. Although it is true that there was a control

through power by the college system, the plot was centered on the sunshine policy. To human being there is a voluntary and positive attitude. If anyone begins to take this attitude it is difficult to stop such action. Through emotional support, this voluntary action was encouraged to take root. The experiment was an attempt to doubt the obvious, and to search for something new. From afar, this may seem irrelevant to archives. However, for the author who is a professional archivist, it was a time of records through control by Records principles. By organizing into a form of story, its archival implications are observed.

Keywords : companion, dialogue, event, story, narrative, in the mood for love, Nanook of the North, speech, archivist, sympathy, body, emotion, daily life, prose, norm, embodiment, emotional control

1. 프롤로그

기록의 관점에서 일상생활을 살펴보았다. 어떤 기록인가가 어떤 관점인가를 결정할 것 같다. 이 글에서 기록은 한 인간의 몸에 심상으로 자리를 잡아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삶의 기술이다. 인간은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할 때 갈등을 겪는다. 인간은 이럴 때 회피하거나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상황을 수용하고 변형시키면서 적응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어느 경우이든 인간은 그것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만들려는 '생태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William Glasser 2013). 기록도 이런 생태적 욕구를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글에서 주요하게 다룬 것은 연설, 텍스트, 대화이다. 씨앗이 잘 자라려면 좋은 토양, 적절한 물과 온도가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아닐까 한다. 연설, 텍스트, 대화에도 토양, 물과 온도에

상응하는 것이 필요했다. 인지적 능력(감정, 언어)이 토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슬픔과 기쁨, 연민과 우애, 공감과 감정이입 등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감정에 주목했다. 또한, 듣기/말하기/쓰기/읽기 등의 언어적 능력에도 주목했는데, 그것은 이런 능력이 물과 온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기록이 삶의 기술로 작용할 때 기록에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 가치’를 말하고 싶다. 인간적 가치는 한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호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이런 인간적 가치는 예를 들어 인간적인 따뜻함과 보살핌 같은 것인데,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덕목일 것 같다. 이 글에서는 규범적 가치와 사용가치에 주목했다. 규범은 인간이 행동하거나 무언가를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판단의 기준이다. 사용가치는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필요한 자유와 능력이다. 규범적 가치와 사용가치에 대해서는 2장과 3장에서 상술할 것이다.

이런 기록학적 태도를 가지고 ‘기록실험’을 시도해보았다.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출장을 다녀오면 복명서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글은 ‘일상생활과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한 기록실험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런 실험을 하라는 조직의 직무명령 같은 것, 제도적인 근거 같은 것은 없었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자발적인 동기로 비롯된 실험이었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기쁨을 은근히 즐겼던 시간이었다. 이런 사실로부터 기록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이미지가 발생했다. 누구라도 한 사람의 직업적 아키비스트로서 일을 한다면 그 나름의 고유한 아카이브 이미지(archival images)를 지닐 것 같다. 여기에서 아카이브 이미지는 당신이 생각하는 아카이브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답할 때 마음에 자리를 잡는 심상이다(조민지 2014).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사회적 제도이자 장치로서의 아카이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정한 영향을 행사하는 심상으로 존재하며 작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에 대해서 말해본다.

직업적 아키비스트라면 기록을 말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전문가로서 개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조직에 속한 조직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직의 의견과 다를 때에 따르는 부담 때문일 것이다. 개인적이라는 말은 관행적으로 주관적인 것으로 분류되어 객관적인 것에 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류법이 틀렸다고 보진 않는다. 여기에는 상당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며 공공기록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접근법이라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글은 그것 말고는 없는가 하는 의문으로 접근했다. 객관주의(objectivism)와 다른 접근법으로 체험주의(experientialism)에 주목했다. 객관주의는 하나의 정확한 기술이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과 항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탐구하는 태도이다. 반면 체험주의는 우리의 사고와 이해의 뿌리가 우리의 신체적 활동에 있으며, 보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고는 신체적 활동을 토대로 하는 은유적 확장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보는 태도이다(G 레이코프 2006). 이런 점에서 체험주의는 객관과 주관의 범주보다는 신체와 경험의 범주에 속하는 담론이다. 예를 들어, 전쟁을 이해할 때 우리는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몸으로 겪은 체험을 받아들이며 전쟁의 참상을 이해하곤 한다. 이런 체험주의적 이해는 구술, 증언, 자전적 기록, 문학 등을 통해 서술된다. 이 글의 자락에는 체험주의가 있다.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미지에서 사건으로 보폭을 넓혀 보았다. 최근 들어 '사건'에 대한 기록학적 시도가 나오고 있다(이경래, 이광석 2017; 임지훈, 오효정, 김수정 2017; 임지훈 2019). 주목할 만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기록실험은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사건보다는 '개인적인 사건'에 한정해서 시도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연인이나 친구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의 개인적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된다. 우선적으로는 이런 사건에 주목했다. 5.18 사건이나 4.16 사건처럼 거대한 사건도 물론 당사자에게는 비극적인 개인적 사건이 된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을 당사자가 자신

의 삶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하느냐에 주목했다.

이 글의 서술방식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다. 객관적인 사실을 확정해가는 논문서술 방식과는 다른 계열의 서술법이다. 필자는 이런 서술법을 서사체(또는 이야기체)로 이해하고 있다. 서사체는 학술논문의 논문체에 전적으로 속하지도 않고, 공공아카이브에서 활용되는 ‘공문체’에도 속하지 않을 것 같다. 서사체는 기본적으로 사건을 기술하면서 이야기를 생성하는 문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문체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시발점, 시퀀스(전개 순서), 감정 유무, 문장형식, 목표 등을 기준으로 문체를 설명해보자.

공문체는 다음과 같다. ① 공문은 규정을 근거로 삼아 출발한다. ② 시퀀스는 〈배경/필요성 → 현황 → 개선방안 → 추진일정〉이다. ③ 문장에는 주어와 주어 없다. 문서를 기안하고 결재하는 담당자가 있다는 점에서 주어와 주어 없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담당자/담당부서는 행위자이긴 하나 주어는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이런 말을 한다. 규정과 절차, 지시에 따른 것뿐이다. 그렇다면 규정과 상부가 원청이고 그들은 하청이다. 하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문제가 생기면 규정을 개선하고 절차를 바꾸며, 진정한 상부인 제도를 개선한다. ④ 문장에는 감정이 없다. ⑤ 공문은 성과를 목표로 한다. 과정을 즐긴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공문만 보면 매사 순풍이다. 성과를 기록하지 않는 공문은 없다.

반면, 공문체와 대비되는 서사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야기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된다. ② 시퀀스는 〈주인공의 등장 → 예상치 못한 사건의 발생과 균형의 깨짐 →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와 연이은 좌절, 조력자의 등장 → 반전 → 균형의 회복〉이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무언가를 이루려고 상당히 애를 쓰지만 그것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③ 이야기에선 주어와 주어 있다. 이야기의 서두에는 주인공의 캐릭터가 소개된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잠시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 상황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수용한다. ④ 이야기에선 감정이 있다. 정서적 변화가 이야기의 본

령이다. 주인공은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윤리적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주인공은 심장에서 박동치는 윤리를 의식하며 근원적인 자기질문을 던진다. 새로운 곳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주인공은 도덕을 재구성한다. ⑤ 이야기는, 특히 자전적 기록은 좌절과 실패를 기록한다. 성과만 있는 인생은 없다. 이력서에는 성과만 기재할 수 있지만 이야기에는 좌절과 실패를 기록해야 한다. 정서적 변화와 윤리적 질문, 관계와 공동체성의 회복이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다.

이야기는 누군가가 살아온 시간을 정리하는 기록형식이다. 우리는 각자 산다. 각자의 체험은 각자의 몫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각자의 신체적 체험을 공유하고 소통해야 한다. 이야기라는 기록형식은 이 때 등장해 각자의 체험을 사회적 경험으로 변용시킨다. 이야기는 사실적 정보제공을 위함이 아니다. 사실을 논증하는 것도 아니다. 목적은 다른 데에 있다. 이야기의 종착점은 도덕성이다. 이야기에 담기는 사건의 줄거리,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정서, 태도와 윤리, 가치와 지향은 결국 도덕성을 형성한다. 이야기가 끝나면 뭔가 이전과 달라진 느낌이 드는 것은 도덕성의 거대한 산이 조금 움직인 것을 의미한다(로널드 B. 토비아스 2013).

이 글은 이야기를 기술하기 위해, 또는 서사체를 유지하기 위해 은유를 과감하게 사용했다. 예를 들어, 동무(대등하고 친밀한 관계성. 기록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을 지칭), 기록풍경(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처럼 기록사건이 펼쳐진 상황. 기록사건은 기록의 관점에서 이해한 사건이다), 화양연화(2장 1절), 월담(2장 2절), 북극의 나누크(3장 1절), 벽돌(3장 1절), 사랑(3장 2절) 등의 은유를 썼다. 이런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야기를 유지하는 것은 은유이다. 사실 이야기 자체가 은유이긴 하지만, 자신이 겪은 것을 말하려면 은유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고통스러울 때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동어반복이다. 그 사람에 대해 별로 말해주는 것이 없다. 그 사

람이 아픈 상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그 사람에게 더 다가가기는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가 은유를 사용하면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쿨이나 시멘트 바닥에 비 내리는 냄새 같은 은유를 사용하며 아픈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처한 고유한 상황에 조금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글의 진행순서는 이야기 순서에 따랐다. 2장에서는 주인공인 아키비스트가 탄생하는 과정과 의미를 서술했다. 3장에서는 그렇게 탄생한 아키비스트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는 생활상을 서술했다. 4장에서는 아키비스트 생활상이 기록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기록학적 함축을 갖는지를 다뤘다. 5장은 그렇게 보낸 아키비스트의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에필로그를 대신해서 서술했다.

2. 아키비스트의 탄생

1) 화양연화

(1) 수용

화양연화(花樣年華)는 인생의 아름다운 한 장면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 말은 왕가위 감독의 동명의 영화(2000년 개봉)와 함께 일상으로 들어왔다. 물론 모든 영화가 상징이 되어 일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화양연화에는 1960년대 홍콩 특유의 지역성과 배우들의 감성, 여기에 어우러진 음악, 어긋나는 삶의 비애 등 좋은 영화가 주는 힘이 들어있다. 아마도 이 영화의 이런 독특한 힘이 삶의 어떤 영역에 닿지 않았을까 한다. 그것은 자기 삶의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말할 때 화양연화와 연결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일 것 같다. 좌절과 실패가 섞인 사건이었으며 현재의 문법으로

는 파고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해도, '그 때 그 곳에서 그랬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가 진실로 살아 있을 수 있었다는 느낌을 간직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 때를 '인생의 아름다운 한 때'였다고 평가할 것 같다. 인간은 은유의 세계에서 산다고 한다(G 레이코프 2006). 그 때를 인생의 아름다운 한 때로 평가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화양연화에서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록실험의 출발점으로 화양연화라는 은유를 사용했다. 이 글에서 은유를 수용한 방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이질적인 것들을 섞어짓기> 하는 방식으로 은유를 수용했다. 섞어짓기는 A와 B를 융합해서 C라는 새로운 존재를 만들려는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A와 B가 각각의 존재로 더 빛나며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는 태도이다.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세계에서 아카이브가 취할 태도 중의 하나는 이런 공간성에 있지 않을까 한다. 섞어짓기 방법론은 텃밭정원(organic garden)에서 취한 방법론이다. 텃밭정원은 텃밭과 정원이 함께 어울리는 곳이다. 또는 텃밭의 채소와 정원의 꽃이 함께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다. 텃밭정원의 섞어짓기 농법은 생태적으로 서로 어울리는 채소와 꽃을 함께 심는 농법이다(오도, 김시용 2013). '장미와 마늘의 섞어짓기'로 부연 설명해본다. 자연의 장미에는 진딧물이 많이 생긴다. 만약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산업방식이라면 장미에 끼는 진딧물을 제거하기 위해 농약(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살포해야 한다. 이럴 때 장미는 무엇일까? '어딘가에 서식하며 스스로 제 삶을 사는' 꽃은 아닐 것 같다. 장미는 대량생산되는 제품(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태적 세계관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텃밭정원을 가꾸는 농부들은 장미 옆에 마늘을 심는다. 마늘의 독한 냄새가 진딧물을 막기 때문이다. 진딧물은 영문도 모른 채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린다. 진딧물을 제거하기 위한 농약은 필요하지 않다. 장미는 홀로 자랄 때보다도 마늘과 공생하며 자라면서 그 향과 색깔이 더욱 진해진다. 장미는 마늘이라는

이질적인 생명을 받아들인다. 마늘도 마찬가지이다. 장미와 마늘은 서로에게 이로움을 주고받으며 각자 제 삶을 살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삶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텃밭정원에서 장미는 농부의 도움으로 마늘과 공생하며 어떤 꽃으로 산다. 또한, 꽃이 있는 텃밭은 그렇지 않은 텃밭보다 아름답다. 장미는 이처럼 ‘실용에 미학을 주면서’ 각자 고유한 삶을 살아간다.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삶도 이런 것이 아닐까? 섞어짓기는 괜찮은 생태농법이다. 논밭에서 꺼내 일상으로, 아카이브로 가져와 조금씩 변형시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그에 적합한 은유를 선택하게 한다. 그리고 어떤 은유를 쓰느냐는 어떤 기록시간을 보내느냐를 결정한다. 삶을 찬찬히 돌아보고 평가하면서 어떤 장면을 아카이브의 형식에 담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은유를 취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느냐이다. 어딘가에서는 시작해야 한다. 이번 기록실험의 첫 번째 기록 풍경은 화양연화였다. 그것은 인생의 아름다운 한 때에서 시작하되, 농약으로 진딧물을 말끔히 제거하는 방식보다는 마늘이라는 이물질울 수용해서 섞어짓기 하는 방식으로 해보자는 것이었다. 비닐하우스의 장미가 아니라 텃밭정원의 장미와 마늘을 말하는 것이었다.

(2) 적용

실험이 시작되는 첫 날, 아무 말 없이 무작정 시를 한 편 쓰자고 했다. ‘내가 가장 예뻐올 때’가 언제인지 시의 형식에 맞춰서 쓰는 것이었다. 인간은 언제 가장 아름다운가 하는 주제에 대한 논설문이 아니었다. 당신은 당신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아름다웠는가 하는 것이었다. 연필/볼펜으로 종이에 썼다. 정해진 시간은 10분이었다. 아무런 사전 설명이 없었다. 왜 시를 쓰는지, 시를 쓰는 것과 아카이브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무작정 쓰거나, 조용히 퇴장하거나 둘 중의 하나였다. 다형

히 동무들은 찬찬히 시의 형식에 담아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통상적이라면 첫 시간에는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아카이브를 하려면 순서를 교체해야 했다. 아카이브에 대해 아는 것보다는 아카이브를 실행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다. 아카이브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다음에 행동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아카이브가 무엇인지 권위가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표준화된 아카이브’가 무엇인지 주입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카이브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초기기억을 그것으로 고정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사회적 상황에 따른 선택이 있지 않을까 한다. 이번 기록실험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았다.

우리는 연애를 시작할 때 연애가 무엇인지 연애담론을 충분히 습득한 후 사랑을 하지는 않는다. 각자에게는 어렸을 적부터 형성된 연애관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서로에게 호혜적인 연애관념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좋은 연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연인은 사회적 올바름을 기다리기 이전에 먼저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럴 때, <잠깐, 좋은 연애가 무엇인지 공부부터 하고 연애를 시작하자>,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연애하면서 이런 저런 갈등을 겪으면서 비로소 도대체 연애란 무엇인가, 어떤 연애가 좋은 연애인가 하는 고민과 공부가 찾아온다. 삶이 이런 순서라면 삶에 필요한 아카이브도 이런 순서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반응이 있었다.

<몇 가지 반응>

- 첫 날, 참 별난 시간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다. 일상을 기록하는 수업인 줄 알았는데 왜 귀찮게 시를 쓰는 거지?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채웠다.

- 조금은 당황했다. 그러나 막상 펜대를 잡으니가 술술 써내려갔다. 그 후 생각했다. ‘이 시간은 뭔가가 다르구나.’
- 시를 써야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동무들은 당황한 얼굴을 지었지만 나는 조용히 웃었다. ‘색다른 수업에 들어왔구나. 재미있겠네.’

동무들은 시를 써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당황했다. 아마도 시를 배우는 수업이었다면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을 것이다. 그래, 시는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직접 써봐야 아는 것이겠지 하는 식이었을 것 같다. 그러나 아카이브를 배우는 시간에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다. 그것은 아마도 시와 기록은 별개의 영역이라는 무의식적 관념에서 나왔을 것 같다. 아카이브는 시인이 시를 쓰면서 남긴 기록물을 수집해서 관리하는 곳이지, 아카이브를 한다면서 시를 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일 것 같다. 물론 필요하면 시인을 찾아가 구술을 할 수는 있어도 아카이브를 한다고 하면서 직접 시를 쓰는 것은 양복을 입고 논밭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색해 보인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닐 것 같다. 시는 인류의 오래된 기록 형식이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일상적으로 시를 접한다. 물론 시를 쓰거나, 시집을 사서 읽는 게 일상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의 범위를 넓혀서 접근하면 정반대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거의 매일 노래를 듣는다. 노래는 운율이 들어간 시가 아닐까 한다. 우리는 매일 일상의 다양한 곳에서 광고 등을 접하면서 ‘시적인 문구’를 접한다. 시는 우리에게 일상적인 기록형식이다. 시를 접하지 않고서는 하루를 살기 힘들 정도이다. 동무들이 10분 만에 대수롭지 않게 시를 쓸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데에 있을 것 같다.

아카이브의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손짓하자, 동무들은 다소는 어리둥절했지만 시를 쓰면서 입장했다. 괜찮은 시간이었다. “시를 써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였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생각을 해 본 것 역시 오랜만이였다. 내

가 가장 예뻐할 때를 썼을 때, 나는 그동안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차근차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 나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의 행복했던 시간을 찾을 수 있었다. 순간적이었지만 시를 쓰는 그 순간 그때의 감정이 떠올라 행복함을 느꼈다.” 시는 삶으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생각이다. 시라는 기록형식에 의지해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쓸 때, 그 순간에 나타나는 삶이 있다. 시를 쓰는 것은 각자의 텃밭정원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한때를 발견하는 좋은 방법이다(시를 쓰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카이브에서 시를 쓰는 구체적인 방식 중의 하나는 이영남 2018).

시를 쓰면서 동무는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 생각을 해보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인간은 생각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런데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뭔가 다른 생각을 했다는 뜻일 것 같다. 또는 ‘다른 생각을 하는 누군가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 같다. 조용히 혼자 있는 곳에서 손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생각하는 존재가 된다. 손끝으로 다가오는 누군가가 있다. 그 존재가 몸을 달아오르게 한다. 생각하는 존재를 철학자의 계보에만 분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키비스트의 계보에도 속할 수 있지 않을까. 공공아카이브를 관리하는 아키비스트는 법률적 존재이다. 그러나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아키비스트는 시적인 존재이어야 하지 않을까.

동무는 행복한 감정을 맛보았다고 한다. 이런 자각으로부터 일상적 행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기록에서 읽는다. 다른 동무들도 시를 쓰면서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세계에서 아카이브는 인간이 행복감에 젖을 수 있는 장소일 수 있고, 그런 시간일 수 있고, 그런 시도일 수 있을 것 같다. 한 동무는 “기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음을 체감했다”고 한다. 체감했다는 말에 주목한다. 시를 썼다는 것은, 아마도 바위에서 물속으로 침병 소리를 내며 몸을 던지는 것처럼, 삶에 빠져들었다는 것은 아니었을까. 침병 소리를 내며 들어간 아카이브에서 동무들이

체감했던 것이 행복이었다면, 아카이브가 시도할 수 있는 영역이 감정으로까지 넓혀볼 수도 있음을 의미할 것 같다.

논의를 정리해본다. 인간에게는 시적 태도가 있다. 아카이브에도 시적 태도가 필요할 것 같다. 시는 오래된 기록형식이며 동시에 일상적으로 접하는 기록형식이다. 시로 얼굴을 돌려야 한다. 그것은 삶의 현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3) 효과

미래의 암울함을 그리는 영화에는 도저히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살풍경이 첫 장면으로 등장하곤 한다. 관객에게 충격을 주려는 의도일 것 같다. 오프닝 장면으로 들어간 외계적 풍경은 SF 영화 특유의 질감을 묻어 나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관객은 전혀 다른 장소에서 펼쳐지는 색다른 이야기를 기대한다. 화양연화 기록풍경도 ‘외계적 풍경’을 첫 장면으로 넣어야 했다. 자신이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장미인 줄 미처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 동시에 자신이 텃밭정원의 장미로 살아왔음을 자각하는 효과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무작정 시를 쓴다는 사실도 예상을 벗어난 일이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부족하다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 화양연화의 진정한 목표는 〈육체의 등장〉이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육체는 다음과 같다. 육체는 물론 살과 뼈와 피, 감각이 살아 움직이는 따뜻한 몸이다. 그런데 이 글은 우리의 감각과 감정, 생각과 이해의 뿌리가 육체적 활동에 있으며, 보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유도 육체적 활동을 토대로 하는 은유적 확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체험주의(experientialism)와 입장을 같이 한다. 앞서 1장에서 말한 바와 같다. 체험주의는 체험(experience)을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인간은 감각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체험을 다시 이해하고 정리하여 자기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체험적 은

유(experiential metaphors)로 이해한다(G. 레이코프, M. 존슨 2006). 이 글은 이 과정에 아키비스트가 개입해서 할 일이 있다고 본다. 아키비스트가 그 역할을 더 잘할수록 그 사람의 고유성, 개별성은 더 잘 발달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는 육체는 그 사람의 고유한 감각, 감정, 언어, 체취, 표정, 관계, 태도 등 어떤 한 인간을 고유하게, 규범적으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깃들여 있는 존재이다. 육체는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해주는 것들을 동작으로 표현한다. 인간은 움직이며 사는 동물이다. 동물에게 이동, 동작은 자유의 근원적 은유이다. 동무들이 육체적 존재로 아키비스트가 된다는 것은 기록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 기록하면서 동작을 고민하는 것, 그럴 때마다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느끼면서 자신이 자신일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아카이브를 고민하고 실험하는 목적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도 기록학의 과제로 보기 때문이다.

육체는 다음과 같이 등장했다. 시를 다 쓴 다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서히 앞을 향해 걸었다. 실험실에는 침묵 속 긴장감이 흘렀다. 모두가 주시하는 전면까지 걸어간 후, 몸을 돌려 정면을 응시했다. 허리를 곧추 세우고 허리를 편 후 동무들은 연설(발표. 이 글에서는 발표라는 일상적 표현보다는 기록학적 함축을 갖는 연설로 시도했다. 이것에 대한 것은 4장 2절에서 상술함. 이하 연설)을 시작했다. 고요히 앉아서 쓴다는 것보다는 육체로 전면에 등장해 말한다는 것이 더 필요했다. 쓴다는 것도 육체적 사용이지만, 그 육체는 자리에 앉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육체이다. 반면, 서서 말하는 육체는 모두의 시선 안에 들어가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몰두하는 육체이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쓰기에 몰두하는 것은 기록하는 소리를 조금씩 내는 것인데 비해(소리로만 존재하는 아키비스트), 앞에 나가 말한다는 것은 육체적 현존이기에 훨씬 다채롭게 고유한 아키비스트가 될 수 있었다.

육체로 등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무들은 당황했다. “첫 날, 첫 시간

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시를 쓰라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초등학교 때 시를 써본 후 처음이었다. 그래도 막상 시작하니 복잡 미묘한 감정이었지만 설레는 마음도 들었다. 주어진 지침에 따라 해보니 시를 쓰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내가 가장 예뻐했을 때를 시로 완성했다. 흡족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나가서 시를 연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위는 소란스러워졌다. 모두가 나와 같이 적잖이 당황한 것 같다. 연설이 뭔지 모르지만, 발표가 아닐까. 발표라니, 100명 가까이 되어 보이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씩 앞으로 나가서 연설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한편으로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으며 걱정을 내려놓고 있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관행적인 태도일 것 같다. 호명이 되면 예하고 대답을 하거나, 자리에 앉아서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은 예상된 일이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발표 일정이 잡히면 찬찬히 준비해서 앞에 나가 발표하는 것도 예상된 일이다. 이런 관행적 장면에서 편안하게 숨 쉬던 동무들은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온전한 육체적 고유성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예상치 못함에 당혹했던 것 같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내용보다는 형식이었다. 육체의 등장이 없다면 기록에 관한 것들도 등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로도 동무들은 반복적으로 육체적 고유성으로 등장해야 했다.

육체의 등장은 다음과 같은 기록학적 의미를 지닐 것 같다. 그것은 무엇을 기록했는지를 제시하면서도 누가 기록했는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아키비스트의 첫 걸음을 온전한 육체로 내딛게 하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아키비스트는 육체적 고유성을 지닌 존재이다. 자신의 고유한 얼굴을 다른 동무들에게 전부 내보임으로써,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드러냄으로써, 특유의 정서적 몸짓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독특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아키비스트는 아키비스트일 수 있었다. 영화의 과정으로 바뀌서 말해본다. 쓴다는 것은 촬영, 작성된 시는 편집이 완성된 필름, 전면에 등장해 연설하는 육체적 등장은 영화가 상영되는 순간이다. 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영이 되어야,

그 상영이 비로소 영화적 시간을 관객에게 줄 수 있듯이, 육체적 등장과 연설은 비로소 기록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었다.

이제 육체적 고유성이 등장했다. 비로소 아카이브가 시작되었다. 한 동무는 말한다. “듣고, 느끼는 감정으로 기록을 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것은 타인의 연설(‘육체적 등장’)을 통해서 더 깊게 느껴지게 된 것 같다. 또, 내가 느끼고 체감한 바를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간직할 수 있게 되면서 긍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았다.” 감정은 예술의 영역에 속한다는 통념이 있다. 아카이브는 그림 왜 아니어야 할까? 시를 쓰고 읽고, 그림을 그리고 감상하고, 사진을 찍고 즐기고, 영화를 만들거나 감상하는 것이 왜 아카이브에는 속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다. 육체의 등장은 아카이브의 울타리를 저 멀리에 있는 감정으로 넓히는 효과가 있다. 동무들은 육체적 등장이 갖는 의미를 감정, 그리고 육체적 표현에서 찾았다. “내가 살면서 생각한 것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이 즐거웠다.”

이상으로 화양연화 기록풍경을 살펴보았다. 동무 평가는 다음과 같았다. “당황과 긴장의 연속으로 끝이 나버린 첫 날, 정말 낮은 날이었다.” 연습 없이 무대 위로 올려진 육체였지만, 불쾌감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알 수 없는 햇살이 스며들어온 시간이었다. 아마도 세세한 내용은 잊었을 것이다. 100명의 동무들이 100편의 시를 연설했다지만, 한 두 문장만 남지 않았을까. 그 대신 각자의 육체에는 어떤 고유한 이미지가 생겼을 것 같다.

2) 월담

(1) 수용

영화는 첫 장면에 주인공을 등장시키고, 그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일상을 찬찬히 보여준다. 그러다가 일상을 깨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영화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주인공은 흔들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하지만, 그것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화양연화만으로는 부족했다. 화양연화가 첫 장면이라면 그것을 흔드는 장면이 뒤따라야 했다. 화양연화가 폰(Font)의 역할을 한다면, 그 아래 시리즈(Series)의 역할을 할 장면들이 하나씩 등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리즈를 구성하는 첫 번째 은유는 월담이었다. 누구나의 인생에도 월담으로 이해되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 사건은 평탄하게 유지되던 일상을 깨는 사건에 속할 것 같다. <어제 나는 담 너머로 모자를 던졌다. 가난한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사주신 비싼 모자였다. 이제는 선택이 남았다. 이대로 돌아가 꾸중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 쓰고 담을 넘어가 모자를 주울 것인가. 사실은 오래 전부터 담 너머를 동경했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유혹이었다. '당신이 원하는 자유가 그 곳에 있다'는 속삭임이었다. 그러나 겁이 나서 월담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에 언제나 담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이었다. 그러나 어제는 담을 넘을 수 있었다. 만약 모자를 던지지 않았다면, 저쪽으로 내 육체의 일부를 던지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나는 여전히 저쪽 담 너머를 의식하며 불안과 동경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월담의 플롯은 이와 같을 것 같다.

플롯은 사건의 배열이다. 플롯은 사건과 사건을 결합시켜서 원인과 결과를 생성한다. 이야기는 플롯이 있어야 전개되고 마침내 결말에 도달할 수 있다(로널드 B. 토비아스 2013). 예를 들어, <순이가 죽었다. 동주가 죽었다.>. 이 두 사건에 플롯을 넣으면, <순이가 죽자 슬픔에 겨워 동주도 죽었다>는 원인과 결과가 생산된다. 그리고 이야기 전개상 또 다른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게 된다. 동주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고, 동주와 순이의 연이은 죽음이 원인이 되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다. 플롯이 있어야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필자에게도 월담의 사건이 있었다. 동무들에게 말해주었다. <동무들, 이상한 느낌이죠? 아카이브가 뭔지 몰라도 이상한 아카이브 같다는 느낌이

동무들 몸으로 들어와 앓을 겁니다. 나에게도 월담 사건이 있었답니다. 10년 전 어느 날, 내게 익숙했던 아카이브의 담을 넘었습니다. 담 너머는 동경의 세계였습니다. 나는 담 너머로 모자를 던졌습니다. 모자를 찾느라 10년을 방황하고 있습니다(이차저차). 우리가 만나는 이 기록시간도 나에게서는 모자를 찾는 시간입니다. 동무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무들은 반신반의했다. 플롯이 부실했기 때문이었을 것 같다.

정 그렇다면 잘 만들어진 이야기가 좋지 않겠냐며 단편소설을 하나 읽어보자고 했다. ‘철학자와 일곱 곡의 모차르트 변주곡’을 권했다. 냉철한 철학자와 충동에 몸을 맡기는 화가가 담벼락을 따라 길을 걷고 있었다. 둘은 가난했다. 어느 날, 담벼락 안의 2층집 마당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이 생긴 화가가 들어가 보자고 하자 철학자는 말한다. “이봐, 어서 가서 그림을 그려. 한 점이라도 더 그려야 먹고 살지. 나는 책을 써야겠어.” 철학자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반면, 화가는 월담했다. 월담이 없었다면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월담사건 이후 사건이 연이어 따라오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이 작품은 『곰스크로 가는 기차』(프리츠 오르트만 2018)에 수록되어 있는, 신문 한 면 정도의 분량으로 20~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짧은 단편이었다. 기다릴 것도 없었다. 스마트 폰을 켜서 그 자리에서 읽으면 될 일이었다. 좋은 문학작품이 주는 힘은 컸다. 동무들은 묵묵히 각자의 삶으로 들어가 월담을 찾기 시작했다.

기록학 교과서에 수록된 전문지식을 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기록학 개론에 수록되는 내용이 필요하긴 했다. 그러나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세계에 들어갈 아카이브는 ‘섞어짓기 운명’으로 태어난 특이한 아카이브였다. 전반적인 줄거리는 삶과 아카이브의 호혜적 만남과 상호작용이었다. 주의할 점은 있다. 여기서 주인공은 삶이라는 점이다.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조연이다. 삶이 등장해야 아카이브도 여기에 동조하며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다. 삶으로 이해되는 사건을 기록테이블에 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문학작품(또는 예술작품)이 필요하다.

(2) 적용

화양연화가 시였다면, 월담은 산문이었다. 시는 세부적인 작성지침이 필요한 데 비해 산문은 주제와 방향, 정서에 대한 힌트면 족했다. 산문은 정서적으로는 여행지에서 보내는 엽서였다. 삶이라는 낯선 여행지에 들어서 엽서 한 장 보내라는 식이었다. 엽서의 미덕은 한 단락으로 줄이는 절약성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나는 전교생이 기숙사에 사는 고등학교를 다녔다. 어느 날, 방과 후에 담담구역을 청소하고 있던 나와 친구는 정말 우연히 청소도구 함 깊숙이 있는 쥐구멍을 발견하였다. 가슴이 떨렸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어두워질 때까지 고민했다. 몰래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눈 밖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마음에 걸렸다. 결국, 우리는 방에서 몰래 나왔다. 우리는 쥐구멍으로 발을 내딛고 수많은 별로 가득 차있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다른 친구들처럼 과감히 시내까지 탈출하지도 않았고, 술이나 담배로 일탈하지도 않았다. 조그마한 쥐구멍 앞에 서서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한 걸음만 뒷걸음질 치면 학교 안이었다. 고작 한 발짝 내딛음으로 학교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것이었지만 두려움 속의 행복이었다. 우리는 그 날 '두려움'이라는 벽을 월담했다. 결코 얻을 수 없을 소중한 반짝이는 추억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월담'이다.

이런 식이었다. 화양연화와 월담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화양연화는 무지개였다. 아름답게 하늘에 걸려 있었지만 다다를 수 없었다. 그러나 여행지에서 보내는 월담 엽서는 구체적인 사건이었다. 사건을 구성하는 사실적 정보들(시간, 장소, 동기, 등장인물, 전개과정 등)이 들어 있었다. 아무리 문학(시, 산문)에 의지해도 '순수 창작'은 곤란했다. 삶의 주

소지가 있는 여행지에서 보내온 엽서가 속속 도착했다. 몇 개를 추려 간단하게 소개해본다.

〈월담〉

- 등갓길 귀에 꽂힌 한 마디 말. ‘맨 얼굴에 못생겼다.’ 충격을 받아 친구의 도움으로 화장했던 일(자신감)
- 어느 체육시간에 앉아서 쉬다가 우연히 바라본 하늘(여유)
- 고입 입시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무작정 밤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도주했던 가출(상쾌함)
- 처음으로 뮤지컬을 보았을 저녁의 이정표적인 충격(‘액팅’)
- 어느 가을 날 점심시간, 급식이 지겨워 친구들과 학교 담장을 넘고 논밭을 가로질러 한 중국 음식점에 뛰어 들어가 먹은 짜장면 한 그릇과 후식으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일(해방감)
- 독서실 간다고 속이고는 밤마다 알바를 하던 여름(숨 막히게 반복되는 수레바퀴에서 살아나왔다는 안도감)
- 수업시간에 편의점을 향해 전속력으로 뛰어가 라면을 먹고 왔던 일(할딱거리며 온 몸으로 느꼈던 짜릿한 흥분)
- 대학 가려고 원서 준비하다 채팅으로 알게 된 친구와 충동적으로 약속을 하고 엄마도 속이고 서울에 올라갔던 일(범죄에 대한 두려움마저 앞선 무모한 충동)
- 미국 뉴욕으로 여학연수를 갔을 때, 늦은 밤 인적 뜬한 아스팔트에 주저앉아 있던 순간(영등이로 전해지는 이국의 열기, 냄새)

멀리서보면 사소한 것들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월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돌아보면 키가 낮은 담이었다. 지금은 싱거운 마음, 우스운 마음도 든다. 그러나 월담을 기록하기 시작하자 육체에서 가장 처음 나온 사건은 이런 것이었다. 그것은 이후 이어질 월담사건들의 출처가 되는 시원적 사건이었다. ‘그 사람의 현대사’는 그 시점부터 시작된다. 어딘가에서 명령어가 날아온 것은 아니었다. 〈월담을 말하는데, 사소한 것

부터 내놓아〉. 이렇게 누가 지시한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자기 삶을 평가하면서 자발적으로 육체에서 꺼낸 엽서였다. 공공기록관리의 맥락에서 말한다면 영구보존기록물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미시적으로 들여다본 자기 삶에서 그런 월담은 사소할 수 없었다. ‘자신이 삶이라 생각하는 것들, 그 곳에 자신이 있었다고 담담히 증언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월담에는 몇 개의 계열이 있었다. 여기에 소개한 계열은 멀리서보면 사소해 보이는 월담이다. 그러나 소개하기 힘든 계열도 여럿 있었다. 지금 돌아봐도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 계열, ‘10대의 문제적 일탈과 반항’이라며 사회성 짙은 다큐멘터리로 등장하는 계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하는 계열 등이다. 이런 계열의 엽서는 사실적 정보를 최대한 소거한 추상화 비슷했다. 그러나 어느 계열의 월담이든 육체적 고유성이 또렷해지는 효과가 있었다.

월담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첫째, 10대 때 있었던 일들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동무들이 20대 전반의 대학생들이기 때문이었을 것 같다. 둘째, 규칙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학교의 교칙, 부모의 룰, 사회적 금기, 스스로 정한 규칙 등이 깨지는 사건일 때 월담으로 이해했다. 셋째, 신체적 감각, 감정이 드러났다(위에서 인용할 때 괄호 안에 병기함). 이런 감정들의 밑바탕에는 ‘쾌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물론 쾌감에는 고통과 슬픔이 배어 있는 쾌감도 있었다. 넷째, 일회성도 있었고 반복성도 있었다. 단 한 번의 짜릿한 사건과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사건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서사적 사건으로 재구성할 때는 모두 ‘삶의 한 장면’으로 배치될 것들이었다.

공문, 이력서 같은 공공기록관리에 등장하는 인생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인생이고 어떤 국면에서든 해피엔딩임을 주장한다. 들쭉날쭉도 없다. 반면, 월담은 삶을 다르게 말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지금까지 잘 생활했다면 그것이 정말 월담일까?” 월담은 솔직

한 의문을 던지는 기록이었다.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좀 더 솔직하게 바라보고 말하고 싶을 때 가능한 기록형식이었다. 반면, 이력서는 수직적이다. 기본적으로 경쟁적인 삶을 기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력서는 사다리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위에 있는 월담에게 손을 내밀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손을 잡고 이리 올라와.” 심리학은 삶을 끌어내리는 이런 말을 창조평판(충고, 조언, 평가, 판단)으로 분류한다(정혜신 2018). 타인이라는 존재를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휘하에 두려는 태도일 것 같다. 그러나 월담에는 삶을 가로지르는 횡단성이 있다. 그래서 베틀에서 낄실과 씨실이 교차하면서 천을 짜듯이, 월담이 등장하자 비로소 삶의 이야기가 천 조각처럼 교직되었다. 그것은 경쟁적 질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일직선이 아니라 전후좌우를 갖는 일정한 면적이 생긴 것을 의미할 것이다. 기록물을 위한 공간은 물리적 보존공간인데 비해, 인간을 위한 공간은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면적, 또는 자유의 공간이다. 인간의 삶에, 그리고 그 삶을 규율하는 규범에 무게중심을 두면 후자의 공간에 주목하게 된다.

한 월담사건을 분석하면서 규범적 아카이브에 대해 상술해볼까 한다. “티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 있었다. 하늘을 처음 본 아이가 된 것 같았다.” 동무는 지금까지 자신이 땅만 보며 걸었던 아이였음을 자각했다. 빠르게 오가던 땅만 있던 세상에 하늘이 생기자, 동무는 공간이 넓어졌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동무는 그 때부터 자신을 조금 느슨하게 대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물론 이렇게 일변한 태도를 키가 자라는 것처럼, 몸무게가 느는 것처럼 측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혼자만의 자기위안일까? 설령 그렇다 해도 상관없지만, 그 이후 삶에서 나타나는 태도의 변화에는 주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태도의 변화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인할 수 없는 육체적 힘으로 작용한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바쁠 때 말을 거는 사람들을 귀찮다고 무시 하곤 했었는데, 그 후 나는 상대방에게 더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동무에게 타인의 자리가 생겼다는 말은 아닐까.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뜻은 아닐까. 육체 속으로 하늘이 들어온 것처럼, 동무의 육체적 반경 안에 타인이라는 존재가 들어왔다. 넓어진 공간에서, 동무는 이제 타인과의 쌍방향적 관계에서 자신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고민하는 윤리적 태도이다. 월담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타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말해주는 사건이다. 이런 점에서도 월담은 규범적 사건이다.

(3) 효과

한 사람이 돌맹이를 던지면 단순 폭력사건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천 명이 돌맹이를 던질 때는 정치적 사건으로 분류해야 한다. 한 명이 한번 정도 월담을 말했다면 그저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백 명이 반복적으로, 집단적으로 월담을 말하자 예상치 못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개인적 울타리를 뛰어넘는 뜻밖의 정치적 효과가 나타났다. 실험실이 해방구로 돌변하기 시작했다.

육체에서 감정이 새어 나왔다. 동무들은 질질 감정을 흘리며 다녔다. “동무들의 월담 연설을 들을수록 마음은 복잡해졌다. 동무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때로는 수줍게, 심지어 매우 은유적으로 고백했다. 거부감이 들거나 잘잘못을 따지고 들 월담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폭 빠져 공감하는 것밖에 할 게 없었다. 동무들도 나처럼 남의 시선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러나 저렇게 멋지게 해냈다. 처음에 나는 왜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까? 나는 서서히 나의 본 모습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치부를 남들에게 드러내기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가만히 있으면 마음의 위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를 알고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조금씩 용기를 냈다. 내 차례가 왔

을 때 월담을 연설할 수 있었다.” 동무들은 기계가 아니었다. 자극에 틈 없이 반응하는 그런 기계이기보다는, 좌절과 갈등으로 번민하면서 자유의 보폭을 넓혀가는 인간적 모습을 하고 있었다.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좌우되는 육체적 고유성으로 자기를 볼 수 있었다.

감정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다. 동무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기록을 더 잘하는 것이라는 알았다. 공공아카이브는 법률을 잘 알고 제도와 표준을 잘 이해해서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미덕일 수 있다. 그러나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세계에 필요한 아카이브는 사정이 다르다. 그 사람의 고유성을 증식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아카이브가 감정을 주입하는 주유소가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아카이브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다만, 아무리 좋아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카이브를 공부하는 일시적 공동체가 필요했다. 육체의 등장과 공동체적 이해를 하기 시작한 동무들은 공적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서로를 공동체의 일원, 또는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서로가 감정에 솔직할수록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정치적 흐름이 월담 국면에서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 동무들은 서서히 감정의 목줄을 풀기 시작했다.

동무들은 이제 ‘막 풀려나 싸대는 개’가 되어 월담을 감행했다. 사실은 담을 넘었다기보다는, 모두 힘을 합쳐 담을 번쩍 들어 올린 것이었다. 동무들은 담을 뺏아서 저 멀리까지 걸어가서는 울타리를 넓게 쳤다. “연설의 토대를 마련해준 것은 교수님이었지만, 그 속을 의미 있고 알차게 채워준 것은 동무들이었다.” 이런 인식이 자리를 잡아갔다. 때로 사는 게 가축처럼 매여 사는 것만 같다. 누가 자신을 가축으로 길들이는 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목줄 푸는 욕망을 품는 것, 의지를 내서 시도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한다. 울타리를 넓히면 가축의 목줄을 매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만약 혼자하기 힘들면, 동무들과 함께 하는 정치적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월담을 말하자 자연스럽게 꿈이 팔려 나왔다. 동무들은 자연스럽게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그 꿈을 포기한 채 살았다. 그러나 최근 나는 ‘포기했던 꿈’으로 돌아갔다.” 월담을 말하는 것은 ‘일탈’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육체 깊은 곳에 갇들어 있는 꿈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다.

여기에 경영마인드는 불필요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꿈인가, 그 꿈이 현실적인가, 현실적이지 않더라도 꿈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보다는, 단지 ‘연설한다’는 기록학적 사실이 필요했다. 또한, 육체를 잠식하는 관행적 태도도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좋았다. 예를 들어, 학점에 대한 집착, 다 그렇고 그럴 것이라는 고정관념, 그 정도는 이미 다 안다는 오만, 오답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하면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정해진 시간 안에 과제를 제출할까 하는 강박, 트랙에 들어서는 순간 앞서야 한다는 무의식적 경쟁심 등은 방해물로 작용할 뿐이었다. 그렇다면,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전문지식은 어떨까? 이것은 교수의 책임이나 무책임할 필요가 있었다. 전문지식은 뒤로 유보한 채 삶을 말하는 것을 촉진해야 했다. 물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새롭게 습득하는 데에는 희열이 따른다. 무책임했다는 것은 희열을 누릴 기회를 동무들에게서 빼앗았다는 것이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경영 마인드의 추방, 일상의 관행적 태도의 제거, 전문지식의 부재 등 불필요한 것은 불필요했다. 기록에 관한 한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상태로 가야 했다.

가난이 찾아왔다. “아, 나는 가난하여 가진 게 꿈뿐이라. 내가 꿈 꾀은 것을 그대 발밑에 깔았습니다. 사뿐히 즈려밟고 가세요, 그 대 밟는 것 내 꿈이니.”(에이츠의 시, 하늘의 천). 동무들이 월담을 말하는 것은 꿈을 바닥에 까는 것이었다. 신메뉴 개발보다는 바닥청소가 먼저일 때가 있다. 바닥에 오물이 가득하고 지독한 악취가 풍긴다면 그 곳에서 맛난 것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월담을 말하는 시간은 바닥을 청소하는 시간이었다. 동무들

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동무들을 위해 꿈을 바닥에 깔았다. 비로소 육체적 기쁨을 증식할 수 있는 바닥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상으로 화양연화와 월담을 말해보았다. 화양연화에서는 육체의 등장, 월담에서는 꿈과 감정을 말했다.

3. 아키비스트의 생활

1) 북극의 나누크

(1) 수용

갓 풀려나 싸대는 개는 자신을 주체하지 못했다. 힘이 넘쳤다. 육체적 기쁨을 위해 더 자유롭기를 원했다. 그러나 막연한 방향은 아닐 것 같다. 기록시간이니만큼 아키비스트의 자유이다. 이번에는 ‘북극의 나누크’ 기록풍경으로 들어가야 했다.

북극의 나누크(Nanook of the North)는 1922년에 개봉된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이 영화는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평가된다. 한 감독이 북극의 어느 지역을 찾아 그 곳의 일상을 기록했다. 나누크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었고, 그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일상생활이 펼쳐진다. 집을 짓고, 사냥하고, 먹고 마시고, 어울려 놀고, 대화하는 모습이었다. 나누크는 ‘에스키모인’이었다. 당시 에스키모는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경멸과 조롱, 혐오의 말이었다. 그것은 멸절한 사람들을 미개인으로 만든 근대 서구 제국주의의 폭력적 태도였다. 그들이 날고기를 먹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찬찬히 기록할수록 날고기의 맥락이 보였다. 그들은 지역의 풍토에 적응하며 살아온 것 같았다. 그럴만한 이유와 필요의 맥락들이 날고기를 에워싸자 날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될 수 없었다. 날

고기는 삶의 일부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계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공아카이브의 기록물이 보존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인간은 삶의 세계를 필요로 한다. 보존공간이 가치 있는 기록물과 좋은 시설과 환경을 요구한다면, 삶의 세계는 가치 있는 관계, 따뜻한 만남, 대화를 요구한다. 동무들은 자기가 정한 북극에 가서 각자가 만나는 나누크의 세계를 가져와야 했다. 그 세계를 가져오되, 따뜻하게 데워서 가져와야 했다. <체온이 있는 육체로 갈 것, 그 곳에 가서는 안심할 수 있는 기록방식을 시도해볼 것, 돌아올 때는 상대에게 배웠던 존중의 태도를 가져올 것>이었다. 아키비스트의 목적은 상대를 만나 찬찬히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에게 배우는 것이었다. 그 사람의 삶이 진실하며 타당하다는 것을 어떻게 수용할까 하는 것이었다(Lisa Schrich 2015). 상대의 강렬함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분노, 슬픔, 환희를 격한 감정으로 나눠야 했다. 그것은 '파드되'(pas de deux, 발레 용어. 두 무용수가 함께 추는 춤) 같은 것이었다. 기록의 이유로 만난 그 시간에 육체적으로 함께 있되 쾌감이 있어야 했다.

갓 풀려나 싸대는 개는 이제 동무아키비스트로 변신해야 했다. 충동만으로는 곤란했다. 충동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절반을 숙고로 채워야 했다. 서서히 숙고해야 할 상황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북극의 나누크에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했다. 북극의 나누크는 동무아키비스트가 가져온 삶의 세계이지 않을까 한다. 동무의 시선으로 기록한 나누크는 에스키모가 아니라 이누이트였다. 동무아키비스트가 만난 나누크는 자신을 이누이트라고 말했다. 이누이트는 '우리, 사람들, 진짜 사람들'이란 뜻을 지닌 말이라고 한다. 그것은 상대에게 배우려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다. "나는 아키비스트로 생활한다, 공부하고 일하고, 빵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기타를 연주하고 음악을 듣고, 갓 닦은 손에 비누향기를 풍기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배우기 위해. 그들이 불현듯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을 되돌아보다가 말할 지도 모르겠다. 그는 우리

동무였다.”(네루다의 시 ‘위대한 기쁨’을 개작). 동무아키비스트는 환대와 우애의 세계로 입장하기 시작했다.

(2) 적용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기록현장으로 나갈 때였다. 그동안 부지불식간에 체감했던 것들을 현장에 나가 시도해볼 필요가 있었다. 동무들에게 영화 4편을 권했다. 윈더풀 라이프(일본, 2001), 타인의 삶(독일, 2007), 꿈꾸는 카메라(미국, 2004), 스모크(미국, 1995) 등이었다. 윈더풀 라이프는 자기 인생에서 화양연화에 해당하는 장면을 기록하는 영화이다. 타인의 삶은 타인을 관찰하고 배우는 영화이다. 꿈꾸는 카메라는 도시의 뒷골목에 찾아가 그곳을 기록하는 영화이다. 스모크는 자기가 애착을 갖는 장소를 기록하는 영화이다. 네 편외의 영화는 북극의 나누크로 분류할 수 있는 영화이다. 동무들은 영화 4편을 모두 보았다. 영화를 본 후에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기록할지를 정했다. 영화를 모방할 것을 권장했다.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절차적 접근보다는, 처음에는 좋은 문학, 예술작품을 모방하는 것이 유용할 것 같았다. 모방은, PC와 프린터의 입력-출력이나 복사기의 복사기능과는 다를 것 같다. 모방은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시간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좋은 작품을 충실히 모방하면 모방할수록 자기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더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다.

동무들은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프로포절을 한 후, 각자의 북극으로 떠났다. 기록상대는 네 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사람(타인/자신), 동·식물, 장소, 사물 등이 그것인데, 이를 도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세계의 기록상대

범주	상대
타인	- 가족 : 할머니, 엄마, 아버지, 언니, 여동생, 남동생
	- 연인 : 남자친구
	- 친구1 : 초중고 친구
	- 친구2 : 대학교 친구(학과, 동아리, 기타 자치활동)
	- 친구3 : 성소수자 친구(무성애자, 동성애자), 기숙사 룸메이트 친구
	- 알바생으로 만나는 사람 : 학원의 원장, 영어교사, 편의점 손님들
	- 특정모임 멤버들1 : 피어싱 가게 알바생, 필라테스 강사, 헤어 디자이너, 네일샵 사장
- 특정모임 멤버들2 : 동물병원 간호사, 골프 코치, 목수	
자신	- 기록물 : 사진앨범, 편지, 일기
	- 사건 : 연대기, 좌절된 꿈(축구선수, 무용수), '추억'
	- 습관/취향/활동 : 취미, 패션, 향수, 소비패턴, 미식축구 활동, 여행
동식물	- 반려동물(개, 고양이), 야생동물(길고양이), 나무
장소	집, 섬, 카페, 교회, 골목, 동네, 헬스장, 기숙사 오가는 길, 환승역(등하교 길), 학원
사물	서랍, 편지, 사진

기록상대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타인의 범주에 한해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살펴본다면, 첫째, 할아버지와 누나는 기록상대로 등장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많은 편이었다. 그것은 현재 대학생들의 부모가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할머니가 어린 시절의 양육자였기 때문이었을 같다. 할머니를 기록한 한 동무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다. “나는 ○○○ 할머니의 손자 ○○○이다.” 할머니를 기록한 동무들은 하나같이 깊은 애착과 신뢰를 말했다. 한편, 언니가 여동생이나 남동생을, 형이 남동생을 기록하는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오빠가 여동생을 기록하는 경우, 남동생이 누나를 기록하는 경우는 없었다. 할아버지, 누나, (오빠의) 여동생이 기록상대로 등장하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 이 글에서는 대화의 빈곤으로 이해하고 있다.

둘째, 연인을 기록하면서도 남자가 여자친구를 기록상대로 정한 경우는

없었다. 남자가 여자친구를 기록상대로 정한 경우는 왜 없었을까? 이런 시도는 왜 발생하지 않았을까? 거꾸로 추론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여자가 남자친구를 기록상대로 정하고 원했던 것은 대화의 시도였다. 갈등하는 와중에 긴장감이 있는 대화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고, 갈등상황은 아니지만 더 깊숙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여자친구가 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화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성적 지향의 경우 기록상대가 이성애자, 동성애자인 경우는 비교적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무성애자는 드문 편이다. 무성애(無性愛)는 누구에게도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거나, 성생활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친구는 서로 사랑하면 당연히 연인이 되어야 하고 육체적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이걸 듣고 속으로 ‘대체 왜?’라는 질문을 수십 번은 던진 거 같다. 그동안 나는 그런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친구가 나에게 원했던 것은 가벼운 수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하는 짧은 말 한마디면 충분했음을 알았다.” 무성애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는 유성애자에 속한다. 유성애자의 통념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무성애자로 생활하는 것이 그리 간단치는 않은 것 같다. 이상으로 타인에 한해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다.

‘파드되’를 해야 하는데, 누구랑 할지, 어디에서 할지는 각자의 선택이었다. 자신의 인생이었고 자기 스타일이었다. 그러나 공통의 즐거리는 있었다. 그것은 삶에서 가치 있는 관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달새는 달만 생각한다. 비새는 다음번 비가 언제 내릴까 하는 것. 동무여, 그대가 온 생애를 바쳐 사랑한 그는 누구인가.”(까비르의 시를 개작함). 동무들에게 이런 애착의 관계성(선별기준)을 제시했었다. 동무들은 자신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관계에 들어가 아키비스트로 생활해보고 싶어 했다.

(3) 효과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다. 기록상대가 타인인 경우에는 대화의 효과가 있었고, 기록상대가 자기 자신인 경우에는 성찰의 효과가 있었다. 기록상대가 동식물인 경우에는 교감의 효과가 있었고, 장소인 경우에는 장소의 효과가 있었다. 이런 효과를 모두 서술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곳에서는 장소의 효과와 대화의 효과에 대해서만 말한다.

장소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한 동무는 골목길을 매일 기록했다.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골목길 입구를 사진으로 찍었다. 골목길은 서서히 기록장소로 변했다. “(기록하면서) 천천히 보자 조금씩 다른 것들이 보였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1만 번도 넘게 이 골목을 아침저녁으로 다녔다.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골목이 눈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그러나 기록하면서부터는 골목을 천천히 볼 수 있었다. 매일이 달랐다. 매일 ‘다름’을 느낄 수 있었다. 색이 달랐고, 빛이 달랐고, 골목길 입구를 오가는 자동차, 사람이 달랐기 때문일까? 이런 점도 있었다. 그러나 달라진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 이번 기록시간을 통해 마음 다루는 법을 배워 갔다. 매일 다르다고 생각하는 일상이 사실 이미 매일 다르게 채워지고 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제 마음먹기에 따라 차이를 볼 수 있다고 믿는다.” 동무는 마음이 달라졌다고 했다. 육체와 있는 시간은 한걸음씩 간다. 마음을 바꾸는 비결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었다. 기록은 이 드라마에 조연으로 등장했었다. 좁은 골목길은 ‘공공아카이브의 사각지대’에 불과하지만 그 곳에서도 매일 일은 생겼다. 자기가 애착을 갖는 장소이든 별 관심이 없는 장소이든, 막상 그 곳의 기록자가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것이 기록의 관점에서 본 장소의 효과이지 않을까 한다.

대화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은 여전했지만, 대화를 담는 그릇이 달라졌다. 아키비스트라는 존재가 기록대화(아키비스트가 되어, 또는 기록을 주제로 나눈 대화. 기록대화는 <대화 +

관찰 + 기록화)로 구성된다)를 시도했다는 점일 것 같다. 사실이 의미를 가지려면 도덕적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기록상대는 친밀한 사이였고 자기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자신을 형성하는 데 깊은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기록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소원해진 관계, 갈등하고 있는 관계, 왜 그렇게 사는지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못한 채 주저했던 관계로 입장하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는 용기가 필요했고, 우연한 계기도 작용했다. 아마도 이번처럼 기록시간이 아니었다면 다음으로 또 미루지 않았을까. 동무들이 나는 기록대화를 몇 개 소개한다.

첫째, 동생과 나는 기록대화이다. 초등학교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며 사소한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벽이 쌓이기 시작했다. 서로는 의논하는 자매, 궁금한 자매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자매가 되었다.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듣지 않았다. 관계는 소원해졌다. 그렇기는 하나 멀어져만 갔던 것은 아니었다. 각자의 마음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무여, 그대가 온 생애를 바쳐 사랑하는 그는 누구인가’라는 시를 받자 자연스럽게 동생이 떠올랐다. 충동적인 결정이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연락을 한 후 동생이 일하는 곳(메이크업 학원)에 갔다. 동생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가만히 관찰했다. 뜻밖에도 동생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18살 무렵, 바보 같은 결정을 해서 가족들의 속을 썩여서 싫었고, 집에서는 게을렀던 동생이었는데, 찬찬히 지켜본 동생은 열정적이었다. 동생이 일하는 곳에서, 또는 동생의 세계에서 대화를 나눴다. 어느 순간 관계가 역전되었다. 동생은 평소처럼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았다. 오히려 묵묵히 들었다. 동생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언니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언니는 무엇을 하던지 잘할 수 있을 거야.” 심장에 박히는 말이었다. 나와 함께 해줄 누군가가 동무가 되어 앞에 앉아 있었다. 서로는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며 논쟁하지 않았다. 대신 20대 초반의 고민과 생각, 걱정을 찬찬히 들었다. 다들 대학을 들어가는 데 고등학교만 마치고 메이크업의 길로 들어선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은 여

전했지만, 그래서 견해 차이는 여전했지만, 기록대화에는 서로를 가깝게 결속시키는 힘이 있었다.

둘째, 가족과 나눈 기록대화이다. 언제부턴가 저녁식탁이 황량해졌다. 가족들은 개인의 시간을 보내면서 각자 밥을 먹었다. 엄마와는 간혹 대화가 있었지만 그 대화의 즐거이는 엄마의 아들 걱정이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학교생활은 잘 하는지. 그런데 아키비스트가 되자 용기가 났다. “평소라면 각자 편한 시간에 밥을 먹으며 개인의 시간을 보내겠지만 오늘 만큼은 밥을 차려주시는 엄마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했다.” 관계가 역전되었다. 아들은 엄마를 연민했다. 엄마에 대해 물었다. 엄마는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성장기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몇 개의 단순한 질문만으로 엄마의 슬픔을 알 수 있었다.” 형과도 대화를 나눴고, 아버지와의 대화도 나눴다. 형은 어렸을 적 많이 때렸던 것에 대해 느닷없이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 사과를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기록대화가 깊어가자, 엄마, 아버지, 형은 사라졌다. 대신 간호사, 군인, 축구선수가 자신의 좌절된 꿈에 대해 말했다. 어떻게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좌절했느냐였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상당히 가깝게 느껴졌다. 그런데 무엇이 이런 대화가 진실했음을 말해줄 수 있을까? 그것은 “엄마의 미세한 눈떨림, 아버지의 숨소리, 형의 생각에 잠긴 침묵”이었다. 이것은 기록대화가 아니었다면 놓치고 지나갔을 동작이었을 것이다. 동무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

셋째, 할머니와 기록대화이다. 주말마다 할머니 댁에 갔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할머니는 변함없이 편찮으신 다리로 시장에서 장을 보신 후 엄청난 밥상을 차려주셨다. 할머니 손에 자란 어린 시절 밥상의 반복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연민을 품은 손자였다. 동무아키비스트였기에 할머니가 아닌 ‘○○○’의 삶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매번 1시간 이상은 기록대화를 나눴다. 할머니는 기록대화가 시작되면 부끄러워하셨고 진지하게 대화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셨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할머니는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시작하신다. “할머니, 지금 나와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기분이 어때? 잠깐의 정적이 지나갔다. 할머니는 우리 ○○랑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내가 살아온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 ○○가 이제 진짜 어엿한 성인이구나, 할머니가 잘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잘 커줘서 고맙구나.” 할머니의 변함없는 사랑,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함, 깊은 유대감이 밀려왔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시도했던 기록대화는 성인의례가 되었다. 할머니는 손자의 성장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었다.

몇 개의 대화 장면을 소개했다.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대화풍경은 다양했다. 매주일 교회를 오가는 자동차에서 합창하듯이 즐겼던 대화, 과제를 해야 한다며 도움을 청하자 달려온 친구와의 답소, 친구의 학교에서, 집에서, 공원과 술집, 카페, 학원에서 나눈 대화, 기숙사 방에서 나누던 대화, 질적 연구방법론에서 하는 것처럼 경건하고 공식적인 면담이 즐거이었던 대화, 그리고 카톡/전화 대화 등 다양했다. 대화의 성격도 다양했다. 애도의 대화도 있었고 이런 대화가 주는 몰입감도 있었지만, 흥미로운 일대기로 밤을 새던 대화, 시종일관 진지하기만 했던,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던 대화, ‘갈갈갈’ 웃으며 시트콤 장르로 찍었던 대화도 있었다.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워야 했다. 북극의 나누크에서 인간을 탐구하려면 대화가 필요한 법인데, 이를 위해서는 ‘벽돌’을 제작해서 나눠줄 필요가 있었다(〈붙임1〉). 대화를 청하는 사람이 ‘인간적’일 때 대화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감을 표하는 사람과는 더 많은 대화가 가능한 식이다. 공감 같은 좋은 벽돌을 제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동무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자기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벽돌 한 장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기록현장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붙임 1〉을 나눠주긴 했으나,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은 아래의 벽돌이었다.

〈표 2〉 대화를 나누기 위한 벽돌 (상세한 것은 〈붙임1〉)

에로스	인간적인 따뜻함과 보살핌. 인간의 모든 육체적 요구, 생의 에너지
자기존중	행복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느낌
인정과 지지	누구나 그 삶의 버팀목
궁금해	궁금해 하는 것.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니 왜 그런지 물어보는 것
애도	슬픔(내면에 깃든 상실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
듣기	들어줄 누군가를 찾지 못해 애타는 사람에게 곁을 주는 것
메타 카루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동무마음
기쁨	진실에 가까워질 때 느끼는 감정
용기	절망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는 능력
자유	자기 나름의 이유로 살아가는 것

동무들은 기록상대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리고 만나는 와중에도 공감하는 대화를 연습했다.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공감대화의 정수를 알려주는 강연을 영상으로 보았다(유튜브 검색어 : 당신이 옳다 정혜신TV_#3. ‘충조평판’이 익숙한 우리,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공감은 상대를 진심으로 궁금해 하는 것,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니 왜 그런지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충조평판’(충고/조언/평가/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다. 단순한 진리였다. 어린 새는 수없이 날개짓을 하면서 비행연습을 한다. 그리고 창공의 자유를 날아오른 새는 다시 새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진지하게 영상을 본 동무들은 반복적인 연습을 했다. 한 두 번 하는 것으로는 곤란했다. 예를 들어 100명이 100번을 반복하면서 1만 번을 연습해보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3장 2절에서 말한다). 동무들은 공감하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시도했다. 한 동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대를 궁금해 하면서 상대방의 말에 호응을 할수록, 세세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었다. 상대방은 더 신이 나서 자기 이야기를 했다. 경청과 적절한 몸짓과 응답도 기록방식에 들어간다고 본다.”

또 다른 벽돌인 에로스(인간적인 따뜻함과 보살핌)는 각자의 세계에 사

는 사람들을 가깝게 결속시킨다. 그러나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서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대화를 나눠도 견해가 일치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대화는 차이를 차이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면서 서로를 가깝게 결속시켜준다(존 A. 스탠포드 1994).

동무들에게는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이 있었다. 엄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슬픔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 좌절된 꿈이 있었지만, 그것도 괜찮았다. 젊었을 적 할머니는 빛나는 존재였다. 타인은 도덕적 감정을 불러 일으키며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타인에게 감정이 있다는 단순한 사실, 나와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관계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상대에게 더 친밀감을 느꼈다. 친밀감을 느낄수록 세계가 넓어졌다. 엄마(아버지, 형, 할머니 등. 이하 엄마로 통일)이기 때문에 엄마가 친밀해진 것은 아니었다. 그 날은 '자기 나름의 역사를 살아온 고유명사였기 때문에 가깝게 느껴졌었다. 역사가 없을 것 같았던 엄마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고유한 존재였다. 물론 단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갈등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고유명사임을 알아도 여전히 모르는 것 천지이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로 인해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기록대화가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도덕적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음은 틀림이 없을 것 같다.

이상으로 '북극의 나누크' 기록풍경을 살펴보았다. 동무아키비스트는 상대가 누구이든 그에게 연민을 품고 기록대화를 나누는 존재이다. 한 문장을 써야 다음 문장을 쓸 수 있다. 한 문장을 쓰고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을 쓰고, 문장과 문장을 플롯으로 이어가면서 책은 쓰여 진다. 다음 번 기록대화는 이번과 일정한 플롯으로 연결될 것이다. 여기에서 또 다른 사건이 생기고 은유적 확장을 통해 생각이 깊어지고 관계도 넓어질 것이다.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세계에서 기록은 그렇게 삶에 적응하며 의미 있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한다.

2) 사랑

(1) 수용

마지막 연설은 사랑이었다. 15세기 중엽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대대적인 번역작업(한문 → 언문)이 있었다. 이 때思量(생각하여 헤아림)이 ‘스량’으로 번역이 되었다. ‘스량’은 18세기에 이르러 음가가 ‘사랑’으로 고정되었다. 그런데 15세기 중엽만 해도 思(사)와 愛(애)는 별 차이 없이 쓰였다. 思(사)는 생각으로, 愛(애)는 애정으로 뜻이 분화된 것은 17세기 무렵부터라고 한다(조항범 2016). 15세기 중엽의 정서적 태도를 수용했다, 그러자 기록학의 범위를 넓혀서 이해할 수 있었다. 인간이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인간, 장소, 동물, 식물, 사물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찰하며, 그 존재방식과 의미를 헤아려 찬찬히 기록학적 함의를 모색하는 기록학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런 기록학적 시도는 기록상대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 자기변화를 모색하는 것까지 이어진다. 사랑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장소/동물/식물/사물의 관계를 연결하고 결속시키는 기록의 태도이다. 공공아카이브의 아키비스트가 좋은 기록물을 보존서고에 넣어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언제든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농부가 씨앗을 꺼내 농사지어 식량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처럼,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세경의 아키비스트 역시 자신이 아키비스트가 되어 생활했던 기록학적 체험을 온전히 체화한 후, 그것을 세상과 나눌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사랑의 목표는 체화였다.

체화(embodiment, 體化)는 교육학이나 이야기작업에서 쓰는 개념이다. 한 개인이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육체와 마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상태로, 신체적 참여를 통해서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리처드 L. 홉킨스 2013). 그런데 이 글에서는 육체와 마음을 별개의 존재, 별개의 작용으로 따로 이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심신

상관적이며 유기적인' 상황으로 이해했다. 슬퍼하는 느낌도 육체적 표현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육체적 표현이다. 이 둘은 동시에 발생한다. 전자는 마음에 속하는 것, 후자는 육체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이 두 현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작용한다고 보았으며,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했다. 속으로만 슬퍼하는 것보다는 눈물을 흘리며 동시에 비통한 소리를 내고 몸을 흔들면서 육체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더 슬프다. 이럴 때 슬픔은 주위에 환기된다. 슬퍼하는 사람은 동조하는 사람들과 슬픔을 나누며 애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애도할 수 있는 슬픔이 더 인간적으로 슬퍼하는 것이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체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하되,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했다. 체화는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육체를 자기 특유의 스타일로 자유롭게 사용하며 쾌감을 증식하는 상태이다.

기록물에 대해서는 지적 통제가 중요하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정서적 통제가 중요하다. 이번 기록실험의 정서적 통제는 다음의 명제가 담당했다. <인간이란 육체 덕분에 세상에 존재한다. 인간은 고유한 육체적 태도를 취하며 자신이 사는 세계를 구성한다. 물이 수평의 본성을 지니고 있듯이, 육체도 수평을 선호한다. 인간은 육체적 고유성으로 접촉, 대면할 때 비로소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인 동무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수평적일 때 순수하고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주관적인 체험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체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 기록물의 흐름을 따라 오진 않았다. 화양연화에서 등장한 육체는 월담에서 감정을 얻어 체온이 있는 육체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북극의 나누크에서는 기록상대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육체적 관계(인간적인 따뜻함과 보살핌)를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상태의 육체는 뭔가 어설픈다. 기록인수실에서 이후의 기록관리 절차를 기다리는 기록물의 위치와 같지 않을까 한다. 만약 기록인수실에 기록물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그 안의 정보적 가치가 아무리 풍부해도 사회적 활용은 불가

능하다. 이제 남은 것은 체화이다.

(2) 적용

동무들은 기록현장에 다녀왔다. 질적 연구방법론은 면담(인터뷰)을 할 때 통상 3번 진행한다(Irving Seidman 2009). 정석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기본적으로 3번 왕래하자고 했다. 출장을 다녀온 후 복명서를 작성해야 하듯이 동무들도 이제는 사랑 연설문을 작성해야 했다. 아키비스트 자신이 기록상대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그 존재에 대해, 그 존재와 자신이 맺는 관계에 대해 관찰하고 그 처지를 헤아려 본 후, 애정을 깃들여 글을 쓰는 것이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산문이되, 기록학적 특징이 들어간 기록산문이다. 상술해본다. ① 글을 쓰면서 자신이 아키비스트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② 자신이 아키비스트로 생활하며 체험한 것을 쓴다. ③ 스토리가 있고 리듬감이 있으며 좋은 감정을 북돋우는 문장으로 쓴다. ④ 기록학적 상상력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사실과 허구를 섞어짓기해야 한다. 허구는 개연성이다. 사실을 두텁게 기술할 수 있는 여지를 허구에서 찾는다. 기록이라는 이유로 사실만 쓴다는 생각은 버린다.)

이번 사랑의 플롯은 다음과 같았다. <프로로그(기록하는 근원적 이유) → 환대와 우애의 세계(기록현장에서 발견한 에로스, 특이점/독특함) → 사실적 정보 → 기록방식(대화법, 관찰법, '기록화' 방식) → 에필로그(엔딩에 무엇을 놓을 것인가)>. 동무들은 사랑을 찬찬히 작성했다.

운동선수들은 육체의 한계를 반복적으로 넘어서며 전신을 자유롭게 움직인다. 개, 고양이, 늑대, 표범 등의 동물들도 육체적 태도가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그러나 목줄에 매인 개, 좁은 케이지에 갇힌 개는 그럴 수 없다. 그것은 개가 자기 공간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럴 때 개는 개이면서도 진정으로 개로 존재하지 못한다. 개이면서도 개로 존재하지 못하는 개

의 눈빛은 뿔하고 텅 비어 있다. 육체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쾌감이 없기 때문일 것 같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며 공간을 자유롭게 쓸 때 동물은 자유로움을 느낀다.

무용수들도 무대에 올라 육체를 자유롭게, 그리고 예술적 태도를 취하면서 아름답게 움직인다. 무용수는 아름다운 동작을 순전히 육체로, 언어나 다른 어떤 기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취하며 이야기를 전해준다. “어느 날인가, 무용수의 동작 하나가 내 심장 깊숙이 박혔습니다. 소리 없는 음악과 관객들의 숨죽임,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당신의 동작 하나. 충만한 당신의 무대만큼 나에게도 강렬한 사랑이 있었습니다.”(마중기의 시 ‘무용’을 개작). 이럴 때는 무용수도 진정으로 무용수로 존재하고, 관객도 진정으로 관객으로 존재할 수 있다. 무용수와 관객은 각자가 처한 방식으로 그 예술적 상황을 ‘공동소유-공동관리’(후술) 하면서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다. 이번 기록실험에서는 경기장이나 야생보다는 무대(특히 발레 무용수의 무대)의 은유를 취했다.

‘아키비스트 무대’를 설치했다. 두 개의 장치를 사용했다.

첫째,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기록공간을 웹에 만들었다. 이용한 툴은 드랍박스(dropbox.com)였다. 아이디어와 비번을 공유했던 동무들은 수시로 이곳을 들락거렸다. “이번 기록시간에는 드랍박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했다. 이 사이트는 완전공개 되어 있었다. 여기에 과제를 제출하면 동무들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님은 우리를 거북이와 토끼로 비유하며, 빨리할 수 있는 토끼는 뒤에 오는 거북이를 위해 작성 즉시 제출하라고 했다. 원래 시험에서 커닝은 금지되어 있다. 과제도 혼자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신선했다. 과제를 하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토끼의 과제를 보고 참조했다. 내가 올린 과제를 다른 동무들은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심 그러기를 희망했다. 우리는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것 같다.” 동무들은 과제를 제출할 때 교수에게 하지 않았다. 일시적으로 형성된 기록공동체에 공유자산을 제출하는 식이었다. 교수의 권위

있는 피드백은 사라졌다. 동무들의 애정 어린 피드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드랍박스의 기록은 누구라도 수신인이 될 수 있는 편지였다.

과제 제출의 정해진 시한은 없었다. 각자는 각자의 속도로 과제를 수행했다. “이 시간은 조금 달랐다. 과제를 늦게 제출해도 되고, 심지어 다른 동무들의 과제를 참고하여 할 수도 있었다. 나로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나는 거북이었다. 과제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몰라 막막할 때면 드랍박스의 토끼를 읽으면서 감을 잡았다. 연설문이 다들 훌륭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모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글이었다. 동무들의 글을 보며 감상하고 공감했으며 좋은 쪽으로 참고했다. 나도 잘 써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쓰기 시작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고 한다. 자기 특유의 육체적 태도를 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 컨베이어 벨트의 균일한 시간은 사라졌다. 동무들은 집단적으로 협력하며 과제를 수행했다.

둘째, 집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이용한 툴은 슬라이도(slido.com)였다. 슬라이도는 발표-질의응답 때 보다 많은 질문, 코멘트를 유도하기 위해 활용하는 포스트잇을 웹에 옮겨 놓은 것 같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 동무가 연설을 끝내면 스마트 폰으로 슬라이도에 접속해서 코멘트를 달았다. 2~3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설을 끝낸 동무는 그 중의 2~3개의 코멘트를 꺼내서 추가연설을 했다.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고, 의외의 코멘트에 대해서는 의외라고 했고, 인정과 지지를 보내는 코멘트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했다. 1번의 연설이 있는 후에는 그 즉시 100개의 코멘트가 증식되었다. 100번의 연설이 있으면 1만 개의 코멘트가 증식되는 식이었다.

동일한 아이디어와 동일한 비번으로 접속했기에 모든 의견은 익명이었다. 익명으로 의견을 내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악성댓글은 없었다. 비판도 자제했다. 동무들은 다른 행동을 했다. 동무들은 공감하려고 애썼다. 동무들은 다른 동무에게 충고, 조언, 평가, 판단보다

는, 연설하는 동무와 그 연설 속 동무들을 궁금해 하고,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궁금한 것을 찬찬히 물었다. “연설로 이뤄지던 수업이 좋았던 다른 이유는 모두 연설을 경청하고 공감해주었다는 점이었다. 나는 다른 수업에서는 다른 학우들의 발표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연설을 들으며 몰입할 수 있었다. 내 연설 차례가 왔을 때, 처음에 나는 동무들이 내 연설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었다. 떨리기도 하고, 어차피 연설이 끝난 후에는 다들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해서 바닥을 보면서 연설했다. 그러나 동무들의 숨죽임, 몰입이 느껴졌다. 동무들은 별거 아닌 내 이야기에 경청하고, 공감해주었다. 슬라이드에서는 놀라운 이야기가 속속 올라왔다. 그것이 고마워서 나도 연설에 귀를 기울이며 공감을 시도했다. 한번은 할머니를 기록한 동무가 눈물을 글썽이며 연설을 할 때 나도 덩달아 울 뻔했다.” 처음에는 자발적인 코멘트, 또는 2~3명을 지정토론자 형식으로 지정해서 코멘트를 유도했었다. 공감의 코멘트가 있었지만, 다른 동무들은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소외가 있는 아키비스트 무대는 곤란했다. 다행히 슬라이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유용했다. 슬라이드를 이용하면서 동무들은 집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실 아키비스트 무대는 첫 날부터 설치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기록풍경이 반복되면서 여기까지 왔었다. 연설문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드랍박스에서 누구든 읽을 수 있었다. 아직 연설문을 작성하지 못한 동무들은 그것을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었다. 굳이 출처를 달지 않았다. 내용은 아키비스트 자신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가져올 일은 없었다. 그보다는 플롯을 취하는 것이 요지였다. 플롯은 인류 공통의 자산이다(로널드 B. 토비아스 2013; 크리스토퍼 보글러 2013). 플롯에 출처를 다는 것은 불경이지 않을까 한다. 한 동무가 연설을 시작하면 동무들은 숨죽여 들었다. 연설이 끝나면 2~3분 안에 다양한 의견/코멘트가 익명으로 올라왔다. 익명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익명이기 때문에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 따라오는 부담을 덜 수 있

었다. 과감하게 공감할 수 있었다. 과감한 공감은 다른 동무들도 그럴 것이라는 신뢰에서 나왔을 것 같다. 연설을 들으며 무엇이 궁금했는지, 궁금함에 대해 물었다. 모두가 모두의 피드백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 연설자는 그 중 2~3개를 골라 짧게 추가연설을 했다. 매번 이런 기록풍경이 반복되었다. 각자의 기록현장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각자의 기록현장을 데리고 들어온 동무들과 이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아키비스트 무대가 없다면, 기록현장은 미정리 기록물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매번이 이런 반복이었다.

멀리서보면 ‘시시포스의 허무함’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저 말만 하는 것 아닌가, 결과물이 없잖아. 이런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시시포스는 새롭게 해석된 시시포스였다. 알베르 까뮈의 단편 중에 ‘자라나는 돌’이라는 작품이 있다. 주인공 시시포스는 원래 자신의 돌맹이가 아닌 데도 중간에 기꺼이 그 돌맹이를 짊어지고 묵묵히 걷는다. 한 여름의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도, 한겨울의 찬바람 속에서도. 그러다 간이역 같은 어느 오두막에 이르면 그 안으로 들어간다. 시시포스는 불가에 돌맹이를 내려놓는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한다. “이리와 여기 앉아.” 사람들은 슬슬 불가 옆 탁자 주위에 모여든다. 춤추고 이야기 하고 맛난 것 나눠 먹으며 밤을 즐긴다. 인간의 고전적인 밤 풍경이지 않을까. 아침이 오면 시시포스는 떠난다. 시시포스의 돌맹이는 오두막에 이를 때마다 자라난다. 반복에는 무의미한 반복도 있을 것이고, 일상의 반복이 대체로 이런 맥락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없을 것 같다. 몇 달씩 동일한 극을 반복하는 연극 배우의 반복(연극)에도 일정한 기록학적 함축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정다현 2017). 일상적 반복이든, 어떤 직업수행상의 반복이든, 반복적 행위에서 우리는 기록학적 차이를 발견해낼 수 있다. 시시포스가 주는 상징적 함의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한 동무의 연설은 하나의 돌맹이다. 한 명이 돌맹이를 던지면 단순 폭력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100명이 돌맹이를 던지고, 한 번이 아니

라 화양연화 → 월담 → 북극의 나누크 → 사랑으로 반복하면 정치적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지포스의 기록풍경은 허무보다는, 적대적 대치와 혐오의 시대에 사랑을 향한 정치적 사건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곳에 ‘벌레’가 기어 다닌다. “사람들이 나보고 맘충이래. 죽을 만큼 아프면서 아이를 낳았고, 내 생활도, 일도 꿈도, 내 인생도, 나 자신을 전부 포기하고 아이를 키웠어. 그랬더니 벌레가 됐어.”(조남주, 2016). 맘충만 일상의 대치를 기어 다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일베충(극우성향 일간베스트 사용자), 유족충(세월호 유족), 뜰딱충(노인), 한남충(남성), 폐미충(폐미니즘을 옹호하는 사람들), 급식충(청소년), 지방충(지방 학생), 난민충/인권충(난민, 난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 등. 가상의 세계인 게임에서 적으로 대치하는 상대를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며 느끼는 쾌감이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는 것 같다. 누군가가 벌레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삶과 인격적 가치가 부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경멸, 혐오, 증오, 제거를 위한 존재인 벌레가 되어 살고 있다. 극단적인 적대주의가 인간을 훼손해가는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아키비스트가 아키비스트이기 때문에 아키비스트로서 할 일은 없을까. ‘상대가 충인 혐오의 시대’에 아키비스트는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아카이브는 인권을 위한 사회적 장치라는 생각으로 기록실험을 진행했다. 벌레를 은유로 쓰지 않고 다른 긍정적인 세계를 갖는 것들을 은유로 쓰면서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실험했다.

(3) 효과

사랑의 효과, 또는 (화양연화 → 월담 → 북극의 나누크 →) 사랑의 효과는 ‘사용가치의 증식’이었다. 공공아카이브는 기록물의 정보적 가치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록학에서 추구하는 가치에는 다른 계열의 가치도 있을 것 같다. 아키비스트에 주목하면서는 인간적 가치를 고민하지

않게 된다. 이 글에서 주목한 인간적 가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규범적 가치와 사용가치였다. 규범적 가치는 월담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여기서는 사용가치를 말해본다. 사용가치는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필요한 자유와 능력을 의미한다. 아키비스트로 태어나 생활하는 요지는 사용가치의 증식에 있다고 보았다.

사용가치(use-value)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탁자를 정치경제학적 범주로 살펴보면 여기에는 세 개의 가치가 있다. 교환가치로서 탁자는 가격이 매겨지고 화폐로 매매되는 상품이다. 한편 사용가치로서 탁자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둘러앉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유용한 물건이다. 그런데 교환가치이든 사용가치이든 그 원천은 인간의 노동가치이다. 탁자에는 이처럼 세 개의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 교환가치는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 되고 화폐로 치환되면서 자본증식으로 의미변환 한다. 사용가치는 누군가가 탁자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확장된다. 사물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인간은 스펙 등으로 자신의 상품성(교환가치)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아무리 교환가치도 커도 그는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아들이고 친구이고, 고독한 한 개인이다. 그는 사회적 관계 속 육체로서 사용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발달할수록 사회적 관계조차 시장에 나온 상품으로 대체된다. 시장에는 전문가들이 만든 상품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아버지는 아이랑 육체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포기하고 전문가들이 만든 상품 속으로 아이를 밀어 넣는다. 전문분야가 신설되는 것은 교환가치가 증식되는 것이기도 하다.

대량으로 생산되고 대량으로 소비되는 상품(서비스 포함)에 의존할수록, 삶에 필요한 기반은 서서히 붕괴된다. 산업 생산성이 준 풍요에 기대어 살면서 사람들은 삶의 능력을 상실해간다. 평생 시장에 플러그를 꽂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학생은 학점취득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무언가를 배운다는 단순한 기쁨을 강탈당한다. 표준주택(ex. 아파트)이 보급될수록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 이제는 전문가(의학)의 보

살핌 없이는 아이를 낳을 수도 없다. 시장에 가서 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된다. 한마디로 요약해보자. 한다면, 그것은 사용가치(자기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필요한 자유와 능력)의 상실이다(이반 일리치 2014). 그렇다면, 인간이 육체적으로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닌 아키비스트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사용가치의 회복에 참여하는 것일 것 같다. 무언가를 직접 하면서 향유하는 기쁨, 동무들과 기쁨을 공유하고 싶은 욕망, 만족감을 얻고 창조적으로 표현할 자유를 누리고, 공유하고 싶은 욕망, 자기가 가진 것을 공평하게 나누고 싶은 욕망을 증식하는 것도 기록학의 과제이지 않을까.

체화는 상황과 관련된 특질이다. 우리는 각자 처하는 상황에서 육체를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그 곳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장소적 의미를 체화한다. 자기 특유의 육체적 태도는 권력공간이나 공공장소보다는 자신이 소유한 공간에서 일층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리처드 L. 홉킨스 2013). 아키비스트가 처한 상황(환경)을 소유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공동소유-공동관리'의 관점을 취했다. 한국현대사에도 이런 역사적 시도가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자, 그 간 일본인이 소유했던 공장(생산수단)을 해당 공장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점유하여 '공동소유, 공동관리'를 시도했다. 이런 공장의 생산성은 높았으며, 전국적인 규모이기도 했다. 이 역사적 사건은 노동자 자주관리운동, 또는 노동자 공장관리운동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군정은 다른 정책을 취했다. 미군정은 적산불하 정책을 시행했다. 적산불하는 돈을 소유한 누군가에게 공장을 매매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속성 자본가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었다. 노동자 공장관리운동은 좌절되었다. 경제사를 소유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그 후 한국의 경제발전은 노동자들의 공동소유가 좌절되고 자본주의적 사적소유가 일반화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키비스트 무대는 공동소유-공동관리의 무대였다. “평소 앞에 나서기를

꺼려했다. 용기와 자존심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내가 조금은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느꼈던 것은 나도 모르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연설하는 동무들에게 빠져 들은 나 자신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무대에 올라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나 또한 동무들의 연설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하려면, 자신이 처한 환경을 소유해야 한다. 또는 아키비스트 무대가 공동소유-공동관리 되어야 한다. “이 시간에는 답이 없었다. 동무들은 생각하는 게 다 달라서 기록도 그만큼 다양했다. 그리고 경쟁보다는 서로 경청하고 이끌어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 누가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해도 동무들은 궁금해 하며 경청해주었다. 동무와 동무가 다녀온 기록현장에 대해. 그 열정과 에너지에 놀랐다. 매번 더 열심히 더 진지하게 참여하려고 노력했다.” 육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쾌감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 같다. 혼자서 공간을 소유하는 것은 권력적인 태도이다. 질적 차이는 다양성을 낳는다. 다양한 육체적 고유성은 공동소유-공동관리에서 나온다. “내가 겪어온 것들을 동무들에게 이야기하고 공감 받고 위로를 받았다. 나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그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또 다른 경험을 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더욱 가치 있는 또 다른 경험은 무슨 말일까,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기록학의 범주가 될 수 있을까? 각자의 체험을 ‘이야기 형식으로 증식되는 아카이브’(사건이나 이미지로서 아카이브)에 담는다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사회적 경험이 된다는 것이 아닐까.

이상으로 사랑을 말해보았다. 아키비스트 무대에서 숙성된 사회적 경험은 육체로 회향하여 체화되면서 사용가치를 증식시켰던 것 같다. 소유의 관점으로도 아카이브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공공아카이브는 국가소유의 아카이브이다. 그래서 공공아카이브는 아카이브에 소속된 아키비스트들이 공동소유-공동관리 할 수 없는 아카이브이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기록활동을 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기록협동조합, 일정 규모를 넘지 않는

공동체 아카이브, 마을아카이브 등의 기록실천에서는 공동소유-공동관리를 시도할 수 있다. 또는 이미 시도되고 있다. 소유형태와 관리방식의 다양화도 기록학의 과제라 생각한다. 소유의 관점에서 아카이브를 바라보고 대안적 시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4. 아키비스트의 연설과 텍스트

1) 텍스트 생산

동무들에게 텍스트 생산자가 되자고 했다. 아키비스트에게 필요한 덕목 중의 하나는 기록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작성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었다. 기록물을 다루는 능력이 공공아카이브에 종사하는 아키비스트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면,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세계에서 생활하는 아키비스트에게는 텍스트 작성 능력이 기본적인 능력일 것 같았다. 삶에 출현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 작업, 기록현장에서 발생했던 일들에 대한 증언, 자신이 수집한 기록물의 정리기술과 이에 관한 메타기술 등 아키비스트 시간에 출현한 것들을 기록학의 원리로 다룰 줄 알아야 아키비스트일 것 같았다.

이 글에서 텍스트는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첫째, 텍스트는 글로 작성된 것이다. 텍스트에는 문장, 단락, 페이지, 목차, 제목,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한다. 아키비스트는 문장을 쓰고 문장들을 플롯으로 연결해서 사건을 만들고, 이미지와 감정을 정리하고 기술하는 언어적 구성을 통해서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다. 이번 기록시간에 동무들은 모두 5개의 텍스트를 작성했다. 내가 가장 예뻐할 때(시), 월담/심장무용수/북극의 나누크/사랑(이상 산문) 등이 그것이다. 심장무용수는 이 글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것의 목적은 기록컬렉션을 만드는 것을 연습하는 것에 있었다(이영남 2018). 다량의 무용수 사진을 이용해서 일목요연한 컬렉션을 만들면서 기록물을 정리기술

하는 것을 시도해보았다. 그 중의 하나는 산문 형식의 메타기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이유로 텍스트로 구분했다. 5개의 텍스트는 각각 독립적이다. 사랑을 향해 달려온 시간은 아니었다. 각각의 텍스트는 그 자체로 고유한 세계를 갖는 독립적인 텍스트였다. 이 중 사랑의 경우는 이야기 흐름 상 마지막에 위치했는데, 이런 배치로 사랑 텍스트의 작성과 제출은 이 시간이 '끝낼 수 있는 기록시간'이라는 점을 말해주었다. 한도 끝도 없는 반복은 곤란했으니 끝이 있어야 했다. 이번에는 여기가 종결점이라는 선언이 필요했다. 사랑 텍스트는 약 4개월에 걸친 아키비스트의 시간을 정리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

둘째, 동무들과 함께 작성한 것이다. 물론 초안은 스스로 고민해서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아키비스트 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거치면서 완성하는 것이어야 텍스트이다(4장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 초안도 함께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내부의 문서 생산과 비교해서 설명해본다. 공공기관에서 문서가 완성되는 과정도 세밀하게 보면 여러 단계로 나뉜다. 업무담당자가 지정된 문서형식에 업무내용을 넣은 후(초안), 결재과정을 거치면서 수정 보완하게 된다(권한의 획득). 동시에 등록, 분류, 편철의 기록관리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적법성과 공공성의 부여), 이런 문서 생산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문서 하나가 적법하게 생산될 수 있다. 텍스트 생산도 마찬가지이다. 아키비스트 무대에서 동무들에게 연설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동무들의 인정과 지지를 버팀목 삼아 사회적 의미를 획득할 때라야 비로소 하나의 텍스트로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은 내용적 부족함을 채운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 의미의 증식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 동무들은 텍스트 생산의 증언자가 되어 주었다. 여기에서는 1명이 1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는 10명이 1권의 책을 읽는 것이 낫다는 경구가 어울린다. 동무들과의 집단적인 생산을 통해 진화하는 것이 각자의 고유한 텍스트이다.

무용수는 무대 위에서 춤출 때 비로소 무용수가 될 수 있다. 또한 무용수

는 순전히 육체를 사용하여 부단히 연습한 동작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무용수를 반복해야 무용수가 된다. 마찬가지로 아닐까 한다. 동무들도 아키비스트 무대에서 텍스트를 생산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아키비스트가 되었다. 무용수는 무대 위에서 이미지와 정서를 만들면서 무용수의 존재적 의미를 내세운다. 아키비스트도 아키비스트 무대 위에서 이미지, 이야기, 감정을 텍스트에 담아 생산하면서 자기 나름의 고유한 아키비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아름다움으로 포괄할 수 있는 유용한 것들을 만들 수 없다면 무용수는 무대 위에서 춤추기 힘든 것이다. 무용수는 어쩌면, 무용수가 창조하는 물질(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성질)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맥락에서 짚어 보았다. 아키비스트의 생활은 어디에 있을까? 아키비스트 생활의 상당 부분은 아키비스트 무대에서 고유한 육체적 태도로 연설을 하면서 텍스트를 생산하는 데에 있을 것 같다.

2) 대통령 연설과 동무 연설

주요한 대통령기록물에는 대통령보고서(대통령이 결재하는 문서), 대통령 회의기록(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나오는 기록), 대통령 행사기록(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나오는 기록) 등이 있다. 대통령 행사기록에는 대통령 연설문이 있다. 대통령 연설문 생산과정의 대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설의 계기(연설기획) → 구술, 메모(대통령) → 초안(연설비서관), 수정(대통령), 독회(대통령, 업무관련자) → 연설문 완성(연설비서관) → 대통령의 연설(연설 도중 내용이 바뀔 수 있음)>(강원국 2014).

대통령 연설문에서 주목하려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말과 동작(정치적 의례 속 동작)으로 통치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일정한 정치적 의미와 권력이 작동하는 정치적 의례에서 대통령으로서 동작을 취하고, 연설문을 토대로 연설하면서 자신의 통치행위를 수행한다. 둘

째, 대통령 연설문(텍스트)의 생산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연설비서관일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에서도 연설비서관의 권한이다. 그러나 다른 문서와 특징적으로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대통령 연설문에는 대통령의 구술이나 메모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일 것이다(그렇지 않은 대통령 연설문도 물론 있다). 대통령 회의기록의 경우에는 회의용 문서가 선행한 후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통령 보고서의 경우도 대통령 지시가 사전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업무수행 부서의 업무보고서를 받은 대통령이 결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연설문은 생산, 유지, 성격에서 다른 대통령기록물과는 차이가 있다. 과연, 대통령 연설문(텍스트)의 생산자는 누구일까? 대통령의 구술, 메모와 연설비서관의 초안/최종본 연설문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상으로 제시한 두 가지 의문을 탐구하려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대통령 연설문에는 공공기관의 지시-이행관계로만 볼 수 없는 기록의 역사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문자를 발명하여 여러 용도로 사용하던 고대로 가본다(유럽의 역사에 국한함). 고대에는 텍스트 생산은 오직 연설가(orator)만이 할 수 있었다. 연설가는 펜을 들어 직접 글을 쓰면서 텍스트를 생산하지 않았다. 대신 연설가는 자신이 만든 텍스트를 구술하여(dictare) 필경사(scribe)에게 받아 적게 했다. 구술 개념은 텍스트 생산에 앞서 수행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했다. 중세 말에 작가(author)가 출현해서 직접 펜을 들어 텍스트를 손수 종이에 적게 되자, 비로소 구술은 텍스트 생산과정에서 탈락하였고, 그 빈자리를 쓰다(scibere) 개념과 행위가 차지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쓰기의 개념은 이렇게 성립되었다(오토 루트비히 2013). 흥미롭게도 이런 역사의 흔적이 대통령 연설문에는 남아 있다. 대통령은 연설가, 연설비서관은 필경사라는 대응관계는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원리상으로는 그렇지 않을까 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고대적 전통에 입각해 대통령 연설텍스트 생산자를 대통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동무들에게 연설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작가보다는 연설가가 되는 것이 기록의 전통에 더 어울리는 아키비스트일 것이라 했다. 물론 동무들은 대통령이 아니므로 따로 필경사를 둘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과 달리 연설가와 필경사를 동시에 할 수 있으니 그것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었다. 연설은 자신이 만든 연설텍스트를 토대로 아키비스트 무대에서 말하는 것이다. 연설은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연설의 계기(과제를 받음) → 텍스트 1차 생산(구상, 드랍박스에서 읽으며 생각 정리, 메모 등) → 연설, 피드백(아키비스트 무대) → 제출용 텍스트를 위한 워드 작업(필경 작업) → 연설 텍스트 완성(내용상으로 다듬어진 것보다는 제출이라는 행위))에서 핵심적이다. 만약 여기에서 연설이 빠진다면 동무들은 곧장 작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설이 중간에 필수적으로 들어감으로써 작가보다는 연설가의 자격으로 아키비스트가 될 수 있었다. 아키비스트 무대는 텍스트가 생산되는 장소였다. 동무들은 텍스트의 출처를 이곳으로 삼았다.

이상으로 아키비스트의 연설과 텍스트를 살펴보았다. 이번 기록실험에서 연설은 기록행위였다. 발표는 일상적인 행위인데 비해, 연설은 평가, 수집, 정리기술, 보존, 서비스 등과 같은 기록행위로서 존재했다. 글을 쓰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일상적인 행위이지만, 아키비스트 무대에서 기록의 관점으로 말과 글을 섞어짓기 했던 연설은 기록행위였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보기 등의 기초적 행위는 연설에서 모여 특별한 기록행위를 구성했다. 공공아카이브는 업무담당자의 문서등록을 기록관리의 시발점으로 삼는 편이지만,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세계에서 작동하는 아카이브는 연설을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연설가 아키비스트’는 주목할 만한 존재이다. 아키비스트는 일정한 의례에서 대화와 연설을 통해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통치하는 존재이다. 이 경우, 기록학의 과제는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록에 관한 의례와 언어, 대화법, 연설법 등을 개발하는 것이 될 것이다.

5. 아키비스트의 시간 : 프롤로그를 대신하여

환대와 우애의 기록학이었다. 동무들은 일상의 관행적 관계를 잠시 미뤄두고 기록이라는 이유로 아키비스트가 되어 생태적 관계로 생활해보았다. 아키비스트의 시간은 관행적 경쟁이 아닌 것들(육체적 대면과 만남, 찬찬히 듣기, 주의 깊게 관찰하기, 편안하게 머물기, 상대를 궁금해 하기,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상대와 파드되를 하며 이끌어주기, 편안하게 머물기), 또는 협력적인 것들의 시시포스로 구성될 수 있다. 관행적인 경쟁, 특히 적대적인 경쟁이 있는 곳에서 타인(경쟁자)은 실패해야 하는 대상이다. 나의 승리는 타인의 실패에서 나온다. 타인의 실패가 없으면 나의 성공도 없기 때문이다. 이 시간은 권태롭고 지루하며 정서적으로도 흉하다. 기록실험을 하면서는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동무들은 아키비스트의 시간을 보내면서 실패가 있는 곳에서 관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관능으로 머물렀다. “따뜻한 언어를 배웠고 따뜻한 생각을 배웠다. 진심 어린 표현과 언어를 접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무언가를 느꼈다.” 의사들은 몸이 조금만 더 따뜻해도 많은 질병이 예방될 것이라고 한다. 의학적으로 관능은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신체기관의 기능을 의미하지만, 이 글에서는 체화의 상태로 육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아키비스트의 시간에는 육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관능성이 있었다.

우리는 돌아오지 않는 사랑으로 괴로워한다. 사랑을 잃어가는 일상에 필요한 것은 회향하는 사랑이지 않을까.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사랑은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순간마다 발생했다 사라진다. “우리는 각자 따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꿀벌들처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공동의 목표를 보며 날고 있었다. 기록의 소중함을 느꼈다. 지금까지 난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생각만 했지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남길 생각은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타인의 기록도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기록학은 1:1의 관계보다는 집단적인 관계(多對多)에서 사랑을 공명시키는 것에 복무해야 하

지 않을까 한다. 동무들은 호혜적인 관계에서 서로 도와가며 아키비스트의 시간을 보냈다.

동무들은 처음에는 아키비스트가 뭔지 몰랐다. 대부분은 처음 듣는 말이었다. 그러나 교수의 입을 아무리 쳐다보아도 이 존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베일에 싸인 존재였다. 그럴수록 아키비스트라는 말은 자주 등장했다. 아키비스트는 알 수 없는 존재, 막연한 존재, 미지의 'X'로만 다가왔다. 그러나 동무들은 아키비스트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키비스트를 육체로 겪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아키비스트라는 말이 너무도 생소하고 어색했지만, 한 학기가 지났다고 이렇게 익숙해질 줄은 몰랐다. 이 기록 시간을 통해 나는 점점 아키비스트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동무들도 각자 진정한 아키비스트가 되는 것 같았다. 이 기록시간만큼은 나도 대단한 아키비스트 중의 한 명이었다.” 이런 변화는 아마도 이것은 동무들이 스스로 아키비스트가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

동무들은 북극의 나누크부터 아키비스트인 체 했다. 아키비스트인 자신에게 감정이(empathy)입을 하였으며 기록현장에서 상대에게 감정이입을 했다. 아키비스트 무대가 펼쳐지면 동무들에게 감정이입을 했다. 감정이입은 공감(sympathy)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감정으로, 감정이입을 하면 감정이입을 한 대상처럼 행동하게 된다(G. 레이코프, 2010). 동무들은 마치 아키비스트인 것처럼 행동했다. “동무여, 그대가 아키비스트이거든 아키비스트인 체 하자. 속이지 말고 아키비스트인 체 하자.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 땅을 훑자. 혀의 피가 땅 속으로 흐르도록, 땅의 말이 나올 때까지.”(조명희의 시 동무여를 개작함). 동무들은 자신들의 육체에서 ‘혀의 피, 땅의 말’이 나올 때까지 아키비스트인 체 했다.

이제 모두 끝났다. 거의 대부분의 동무들은 공공아카이브의 전업 아키비스트나 공동체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키비스트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아키비스트일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여럿이 어울려 아키비스트로 생활했던 이런 시간도 삶을 배우고 삶의 기술을 익히고 사용

하는 데에 유용할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직업을 갖고, 연애를 하고 헤어지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기르고, 친구를 만나고 동료들과 어울리고, 낯선 이방인을 만나고 싫은 사람과 억지로 만나고, 쾌감을 얻고 상실을 겪으며 살아가면서 그에 필요한 삶의 기술에 속하는 하나의 사건이면 충분할 것 같다.

동무들은 육체로 왔다가 육체로 떠났다.

〈붙임 1〉 대화를 나누는데 필요한 벽돌

에로스 _ 인간적인 따뜻함과 보살핌. 인간의 모든 육체적 요구, 생의 에너지
자기애 _ 퇴행과 성장으로 난 두 갈래 길
자기존중 _ 행복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느낌
몸 사랑 _ 몸이 정신이고 육체가 정체성
뻔뻔하게 _ 유아적 환상 없이 세상 읽기
천절 _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지켜보기
인정과 지지 _ 누구나 그 삶의 버팀목
공감 _ 궁금해 하는 것.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니 왜 그런지 물어보는 것. 충고/
조언/평가/판단을 하지 않는 것
애도 _ 슬픔(내면에 갇든 상실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 타인의 상실에 대한 반응
용기 _ 절망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는 능력
변화 _ 세상을 보는 시각과 삶의 방식 수정하기
자기실현 _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일

듣기 _ 들어줄 누군가를 찾지 못해 애타는 사람에게 곁을 주는 것
메타 카루나 _ 함께 흔들리며,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동무마음
용서 _ 잘못을 찾지 않는 것,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 것
정의 _ 부당하고 불의한 운명에 저항하는 힘
평화 _ 폭력 없는 세상을 가꾸고 살아가는 시도
책임 _ 과정과 결과를 변명 없이 수용하는 것
진실 _ 샅된 거짓이 없는 마음(思無邪)
기쁨 _ 비탄을 춤으로 바꾸고 남루한 옷을 풀어 희열의 띠를 두르는 것
행복 _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때
사과 _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침묵 _ 혀를 잡아둘 때와 풀어줄 때를 아는 것
자유 _ 자기 나름의 이유로 살아가는 것

※ 『사람풍경』(김형경), 『좋은 이별』(김형경), 『당신이 옳다』(정혜신), 『비폭력대화』(캐서린 한), 『대화의 심리학』(부르스 패튼 외), 『소년이 온다』(한강), 『듣기의 철학』(와시다 기요키즈), 『인간의 75가지 감정표현법』(A. 앤젤라), 『왜 용서해야 하는가』(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처음처럼』(신영복) 등을 사용하여 작성함

〈참고문헌〉

- 강원국. 2014. 『대통령의 글쓰기』, 서울: 메디치미디어
- 김종철. 2019.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서울: 녹색평론사
-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 김형경. 2012. 『사람풍경』, 서울: 사람풍경
- 김형경. 2012. 『좋은 이별』, 서울: 사람풍경
- 오도. 김시용. 2013. 『덧밭정원 가이드 북』. 홍성: 그물코
- 이경래. 이광석. 2017. 동시대 '대항지역'의 기록화: 용산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3, 45-77
- 이영남. 조민지. 2014. 새로운 기록방법론을 위한 기호론적 접근. 『기록학연구』, 41, 113-173
- 이영남. 2018. 기록학과 교육적 관점 : 기록향연,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57, 165-234
- 임지훈. 오효정. 김수정. 2017. 사건아카이브의 시론적 연구. 『기록학연구』, 51, 175-208
- 임지훈. 2019. 『사건 아카이브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 : 동화농민혁명기념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다현. 2017. 연극기록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 :레퍼토리 기록화를 중심으로. 한신대 대학원 석사논문
- 정혜신. 2018. 『당신이 옳다 - 정혜신의 걱정심리학』, 서울: 해냄
- 조남주. 2016. 『82년생 김지영』, 서울: 민음사
- 조민지. 2014. 『기록과 기억의 문화정치 :국가기록 전시의 기호학적 접근』. 한국외대 박사논문
- 조은성. 2013.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7, 75-142
- 조항범. 2016. 『우리말 어원 이야기』, 서울: 예담
- Ackerman, Angela. 2012. The Emotion Thesaurus: A Writer's Guide to Character Expression.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서준환 역. 2014. 『인간의 75가지 감정표현법』, 서울: 인피니티북스)
- Christopher Phillips. 2007. Socrates in Love. W W Norton & Co Inc (이세진 역. 2008. 『사랑, 그 위대한 악법』, 서울: 예담)
- Christopher Vogler. 2007. The Writer's Journey: Mythic Structure for Writers. Michael Wiese Productions (함춘성 역. 2013.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서울: 비즈앤비즈)
- Douglas Stone. 2000. Difficult Conversations, Penguin Group (김영신 역. 2003. 『대화
의 심리학』, 서울: 21세기 북스)

- G. Lakoff, 2006. Whose Freedom? - The Battle Over America's Most Important Idea, Audio Partners (나익주 역. 2010. 『자유는 누구의 것인가 - 왜 진보와 보수는 서로 가지려 하는가』,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G. Lakoff, M. Johnson, 2003. Metaphors We Live by, Univ of Chicago Pr (노양진, 나익주 역. 2006.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박이정)
- Irving Seidman, 2013.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Teachers College Pr (박혜준, 이승연, 2009.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면담』, 서울: 학지사)
- Ivan Illich, 1979. The Right to Useful Unemployment, Marion Boyars (허택 역. 2014.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 - 시장 상품 인간을 거부하고 쓸모 있는 실업을 할 권리』, 서울: 느린걸음)
- John A. Sanford, 1988. Between People: Communicating One-To-One, Paulist Pr (김중원 역. 1994. 『만남, 대화 그리고 치유』, 서울: 하나의학사)
- Otto Ludwig, 2006. Geschichte des Schreibens, Walter de Gruyter & Co, KB Berlin (이기숙 역. 2013. 『쓰기의 역사 - 고대부터 서적 인쇄술의 시대까지』,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Lisa Schirch, David Camp, 2007. The Little Book of Dialogue for Difficult Subjects: A Practical, Hands-On Guide, Good Books (진선미 역. 2015. 『공동체를 세우는 대화기술』, 서울: KAP)
- Marshall B. Rosenberg, 2015. Nonviolent Communication(Paperback, 3), Puddle Dancer Pr (캐서린 한 역. 2017. 『비폭력대화』, 서울: 바오)
- Richard L. Hopkins, 1994. Narrative Schooling - Experiential Learning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Education, Teachers College Pr (강현석 외 공역. 2013. 『내러티브, 학교교육을 다시 디자인하다』, 서울: 창지사)
- Ronald B. Tobias, 2003. 20 Master Plots: And How to Build Them, Writers Digest Books (김석만 역. 2007.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무 가지 플롯』, 서울: 풀빛)
- William Glasser, 1986. Control theory, pbk, Harper & Row. (김인자 역. 2013. 『당신의 삶은 누가 통제 하는가』,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